창조경제 주체는 사람이다

김창경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창조경제를 조명하는 수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다양한 관점의 기고문들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언론이나 국회에서 창조경제의 모호함에 대해 쓴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창조경제를 정의하거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창조적이 아니라고 본다. 창조경제를 제한된 스스로의 틀에 가두자는 것 자체가 비창조적이다.

지금 창조경제가 국정운영의 핵심 화두인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최상위 국정 철학인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즉, 100퍼센트 국민들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창조경제다. 한마디로 "국민 개개인이 지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려 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경제가 창조경제"다.

이러한 창조경제에서는 대기업 회장뿐만 아니라 이태백시대(이십대 태반이 백수인 시대)의 긴 터널을 지나는 청년 백수들도 행복해야 한다.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들도 모두 행복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내일의 보다 큰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시골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가슴속에 절절한 이야기 하나쯤은 품고 있다. 전수하고 싶은 비법 하나쯤은 있다. 이들이 이러한 아이디어, 이야기로 큰돈은 못 벌더라도 매달 5,000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이것이 국민행복이고 창조경제다. 아무리 백수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더라도 라면 끓이는 자기만의 비법 하나는 가지고 있다. 살림만 하는 주부들도 쌓여만 가는 골칫거리 재활용품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기술은 있다. 이런 소소한 생각을 지식재산화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창조경제 시대 정부의 역할이다. 어느 특정 기업군 육성, 개별 기술군을 산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를 제한된 틀에 가두자는 것 자체가 비창조적이다. 소소한 한 가지 재능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모두가 혜택과 기회를 갖는 경제가 진정한 창조경제다. 즉, 승자 독식이 아닌 100퍼센트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주체는 사람이다. 승자만이 독식하는 성장이 아닌 모든 창의적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가는 성장이 창조경제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렇기에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 대한 진지한 교육적 고민이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이 보유한 잠재력을 발현하고 창조적 가능성을 키워가야 한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기부터 집단지성, 클라우드 네트워킹 등 스마트 시대 지식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무한한 창의력을 발현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의 큰 임무 중의 하나가 이들 창의인재를 기르기 위한 창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이 주역이 되어서 창의성이 창발될 때 비로소 창조경제는 꽃을 피울 것이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표지 이야기 | 4월 15일 '식물공장'을 개발하는 농업벤처기업 '만나씨이에이'를 찾았다. 20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체된 농업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창의적 발상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창조기업의 현장이다.
표지사진 · 김성태 객원기자

기획특집

깨어나라! 창조경제… 아이디어가 일자리다

1 더하기 1은 2라고 답하면 뭘 모르는 당신.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답하면 유행을 좀 아는 당신. 귀요미도 아닌 다른 답을 찾는다면? 뭘 좀 아는 당신. 뭘 좀 아는 미국의 한 대학생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만든 인터넷 친구맺기가 2013년 현재 9억 명 이상이 가입한 세계 최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으로 성장했다. 흔한 인맥도 정보통신기술(ICT)과 만나니 창의적 사업으로 탄생한다. 창조경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내놓고, 아이디어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해 창의적 자산으로 구현되는 것, 현실이 된 창의적 자산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성장을 이뤄가는 그것이 박근혜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추진 중인 창조경제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04.2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30일(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위클리 공감〉 이 기사!

부처 업무계획 중 교육 기사 가장 먼저 눈길

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라서 그런지 늘 관심사가 어린이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3호 〈위클리 공감〉에서도 교육부의 업무보고 기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축하고 교육비를 경감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창의적 교육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에 관심이 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를 구현하겠다는 내용도 인상적입니다. 각 부처가 더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 보완해가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 다뤄주세요 곧 무더워지는 여름입니다. 여름이 오면 각종 질병과 전염병 등이 나타나게 될 텐데, 여름이 오기 전 질병 관리에 대한 부분과 청결·위생·여름철 관리법 등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질병에 약한 영·유아와 노인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희(주부·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지난 호를 읽고

문화기사도 훌륭한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은 정책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참 좋습니다. 문화 기사도 훌륭해서 꼭 챙겨읽는데요. 204호에 실린 고택에서의 하룻밤 임하호 '물가의 집' 안동 수애당 기사가 참 좋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더군요. 경쟁사회에서 지친 심신을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고택에서 위로 받고 싶습니다. 〈위클리 공감〉에서 소개해 준 것처럼 올 봄에는 우리의 아름답고 고즈넉한 고택에서 심신을 정갈하게 해보려 합니다. 벌써부터 설레고 마음에 자연이 찾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강수정(주부·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지구 지키기

204호 기후변화주간 환경실천 편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4월22일 지구의 날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후변화주간을 맞이하여 환경실천 행사가 있는 줄도 미처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실천법이 우리 곁에 얼마든지 있다는 내용에 공감합니다. 쓰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등을 생활화하며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렵니다. **전호제(회사원·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독자제안

귀화인이 보는 한국 사회 문제 알고 싶어

대한민국이 좋아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구수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로버트 할리 씨와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 등입니다. 이분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와 귀화를 한 이유,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또는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같은 문제점들을 〈위클리 공감〉 인터뷰를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벼룩시장 명소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벼룩시장에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구경하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며 바꿔 쓰고 다시 사용하는)'가 가능한 벼룩시장에는 나눔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위클리 공감〉에서 정겨운 사람 냄새가 담긴 벼룩시장의 모습과 가볼 만한 벼룩시장 명소 등을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송지수(회사원·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탈세 제보하면 최대 10억원 드려요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활동을 전개합니다. 올해 신설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한 사례를 신고하면 됩니다. '탈세제보포상금제도'는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제보자가 탈세제보 시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신고방법 최근 5년 이내 법인 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예식장·장례식장 등)와 거래하면서 사업자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

신고경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포상지급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탈세가 확인되면 건당 포상금 50만원 지급(연 5,000만원까지 지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신고방법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탈세사실이 기재돼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인터넷, 서면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공

신고경로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탈세제보' 메뉴
▶서면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스마트폰 : M-국세청 애플리케이션(App)→'탈세제보' 메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포스터 공모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정원박람회 홍보 및 이미지 광고를 위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포스터'를 공모합니다.

응모주제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박람회 주제에 맞고 '생태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를 표현하는 내용 ※ 박람회장 실제 모습을 담아 표현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상금 300만원), 우수상 2명(상금100만원), 장려상 6명(상금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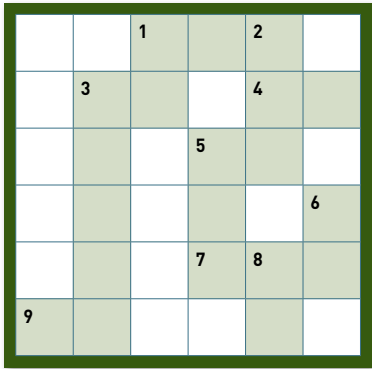
응모일정 5월 10일까지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 정원박람회 홈페이지(www.2013expo.or.kr)에서 다운
▶공모작 출력물(가로40cm×세로60cm)
▶공모작 파일 2종 : ai(또는 eps)파일, 시안용 jpg 파일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및 공모작 출력물 : 우편 발송
▶공모작 파일 : 전자메일(pjw1028@korea.kr) 제출
▶우편 발송 주소 : (540-956) 전라남도 순천시 남승룡로 66 (재)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부

문의 www.2013expo.or.kr ☎ 061-749-2740

바로잡습니다

〈위클리 공감〉 204호(4월15일자) 1면 'READER&LEADER' 내용 중 마지막 문단 첫 문장의 '아직'은 제작상의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낱말맞히기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 맞히기 205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2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1. 영남과 호남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공직자나 직원의 임용·해임·평가 등에 관계되는 행정 업무.
4. "정부는 북한이 ○○ 제의에 거부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5. 아름다운 문장 또는 아름다운 글귀.
7. 아주 짧은 시간.
9. "남북 긴장 국면에서도 외국인직접○○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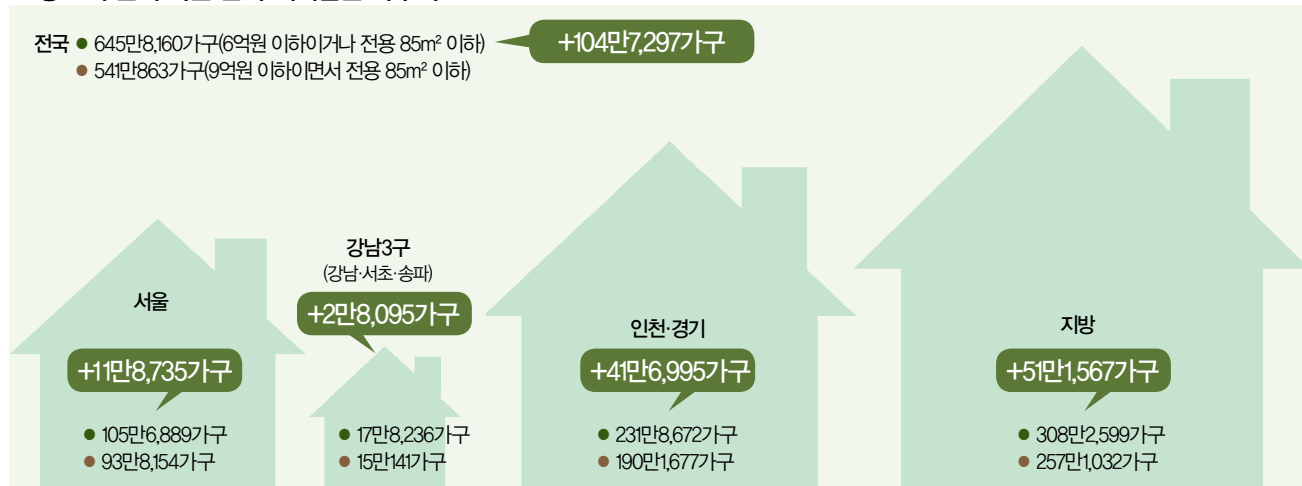
세로 풀이
1. 외국에 거주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 오는 5월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3. "신종 조류○○○○○가 중국 북부로 확산하자 보건 당국이 발열감시 대상 지역에 베이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5. 북한, 이것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 유도탄.
6. 산맥을 크기에 따라 나누었을 때 가장 큰 단위. 백두○○.
8. "○○만국제정원박람회가 5월 20일 개막돼 18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www.2013expo.or.kr

〈위클리 공감〉 203호(4월 8일) '공감 낱말 맞히기' 정답
가로 1 국민행복기금 4 전개도 6 유산 7 성공 8 나무 9 장단점
세로 1 국지전 2 행담도 3 금강산 5 개성공단 6 유비무환 7 성장

〈위클리 공감〉 203호 '공감 낱말 맞히기' 당첨자
신수인·경기 성남시 중원구 최원근·경기 고양시 덕양구
전재열·경남 의령군 가례면 이정암·전남 진도군 조도면
김예호·강원도 원주시 명륜2 예술관길

※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면적 상관없이 '6억 이하' 양도세 면제

여·야·정,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기준도 '6억 이하'로 합의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 어떻게 바뀌나

구 분	4·1 부동산 대책 원안	여·야·정 합의안
취득세 연말까지 면제	생애최초(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확대 주택 크기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6억원 이하 또는 85m² 이하 주택

정부가 4월 1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는 면적과 집값 중 어느 것 하나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4월 15~16일 이틀간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먼저 주택거래 양도세 면제 기준을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85평방미터 이하이고 9억원 이하'에서 '85평방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집값이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5년 동안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여·야·정 협의체가 양도세 5년 면제 기준과 관련해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 소유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다.

여·야·정 협의체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85평방미터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서울 지역 주택에만 돌아가고 지방 중·대형 주택의 경우 면적 제한으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부부 합산 연소득도 7,000만원으로 올려

여야는 이번에 합의된 면세 기준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다. 적용 시점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월 1일로 소급 적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정은 민주당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원 기준인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을 상향할 것을 요구한 부분과 공공임대 주택제도 확산을 위해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추가 혜택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택 수는 당초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혜 대상보다 크게 늘어난다.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인스랜드부동산 조사결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6억원 이하 또는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전국에 645만8,000여 채에 이른다. 당초 541만여 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보다 100만 채 정도가 더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취득세 면제 혜택 가구도 정부 원안을 적용할 때보다 15.1퍼센트 많은 651만2,000여 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과 여·야·정 합의에 따라 완화되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주택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된다. 단, 대상 주택은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에 한정된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부터 연말까지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4월 22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을 빌릴 수 있다. 은행이 고객 신용도 등을 보고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DTI 규제를 받지 않으면 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17일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구입하려는 주택이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에 집값 3억원 이하는 연 3.3퍼센트 금리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60~85평방미터에 집값 6억원 이하는 연 3.5퍼센트다.

글·박기태 기자

“국보 1호 숭례문 다시 돌아옵니다”

5월 4일 준공식에 앞서 4월 22일부터 국민 염원 배달할 ‘문화융성 희망우체통’ 행사 열려

국보 1호 숭례문이 국민들 곁으로 돌아온다. 문화재청은 5월 4일 숭례문의 복구를 기념해 국민참여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로 600년 서울 역사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재탄생을 국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의 염원 속에 다시 열릴 숭례문이 기대된다.

중앙포토

5월 4일 복구 기념식을 통해 국민 곁으로 돌아오는 숭례문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2008년 2월 10일 희뿌연 연기 속으로 사라져가는 숭례문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태조 7년에 완성된 후 600년 동안 서울의 역사를 지켜온 숭례문은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우리 민족의 상징이었다. 역사의 증인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광경 앞에서 국민들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숭례문이 5년 3개월여의 복구 작업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문화재청은 5월 4일 준공식을 갖고 복구된 숭례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본격적인 현장 공개에 앞서 4월 22일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숭례문 복구 기념식’ 행사를 진행한다. 숭례문 복구의 준공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기념 행사는 ‘다시 찾은 국보 1호 숭례문, 문화를 누리는 새 문이 열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행사 주제는 ‘상생의 비나리’로,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을 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 서사 구전 문학인 ‘비나리’의 의미를 담았다.

국민들 엽서는 1년 뒤에 보낸 이에게 배달

이번 행사는 크게 준공식 당일과 사전행사로 나눠서 진행된다. 먼저 사전행사로 ‘문화융성 희망우체통’이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열린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숭례문과 광화문광장, 후원사인 신한은행 전국 지점 100곳에서 펼쳐진다. 국민 누구나 숭례문을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비치된 우체통에 넣을 수 있다. 이 엽서들은 기념 행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희망보감’에 담겨 5월 4일 준공식 때 길군악 행렬로 운반한다. 행사가 끝난 1년 뒤에는 엽서 작성자들에게 회송된다.

5월 1일에는 숭례문 복구를 선대왕께 고한다는 의미로 종묘 정전에서 ‘고유제’를 지낸다. 고유제는 국가나 개인의 집에서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종묘(宗廟) 등에 사유를 고(告)하는 제사를 말한다. 같은 날 숭례문 현장에서는 ‘숭례문에 다시 불을 밝힌다’는 의미의 경관조명 점등식이 열린다. 점등식은 저녁 8시부터 30분 동안 이어진다.

5월 4일 준공식 당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식전 행사로 무대에 오를 어린이 합창단이 문화유산을 잘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염원을 담아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과거의 액운을 씻어 하늘로 보낸다는 의미의 ‘천도의식’도 지낸다.

오후 2시부터 45분 동안 진행될 준공식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부터 복구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이 상영된다. 숭례문의 복구 완료를 하늘에 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성대무(太平聖代舞) 공연도 이어진다.

준공일 개문의식은 조선시대 군사의례 재현

숭례문 개문의식은 조선시대 군사의례 형식을 따른다. 50명의 정렬된 수문군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뒤를 주빈과 어린이 2명이 따른다. 2011년 문화재사랑 창작동요제 입상자 1명과 다문화가정 어린이 1명이 대표로 나선다.

개문의식 뒤에는 ‘희망보감’을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희망우체통에 담긴 엽서를 희망보감에 담아 길군악 행렬 속 채여(왕실에 의식이 있을 때 귀중한 물건을 실어 나르던 가마)에 싣는 의식이다.

대취타·상모·탈춤·씻김 의례 연희자로 구성된 길군악 행렬은 희망보감을 싣고 숭례문과 광화문 광장을 통과해 광화문 앞 상생마당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세종로 및 광화문에서는 전통연희마당인 ‘난장 그리고 난장’이 열린다. 마무리는 80명의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과 함께하는 경축공연 ‘비나리’가 장식한다.

공연이 끝나면 행사에 참여한 출연진과 시민들이 4대 아리랑(본조·정선·밀양·진도 아리랑)을 합창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무대를 끝으로 복구 현장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한편 이번에 복구된 숭례문은 방재설비 시스템을 완비했다. 화재 전 8대였던 소화기를 16대로 늘렸고, 소방펌프 2대·스프링쿨러 148개·옥외소화전 4대·방수총 4대가 설치됐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스템인 불꽃감지기와 광센서선형열감지기도 상·하층 8개씩 배치됐다. 방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원격관제시스템 등의 예·경보 시설을 설치했으며,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G

글·백승아 기자

숭례문 복구 기념 국민참여행사 일정

21	22	23	24	25	26	27
	← ‘문화융성 희망우체통’ 운영					
	오전 10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10시	
28	**29**	**30**	**5/1**	**2**	**3**	**4**
			고유제(종묘) 오후 2시~2시 40분 명예수문장 임명 및 점등식(숭례문 광장) 오후 8시~8시 30분			준공식 오후 2시~2시 45분 현장개방 오후 4시~6시 길군악 행렬 (숭례문 → 광화문) 오후 2시 45분~3시 45분 전통연희 ‘난장 그리고 난장’(세종로) 오후 2시~4시 주제공연 ‘비나리 상생’(광화문 광장) 오후 3시 30분~4시 40분
오전 10시~오후 6시 →						

섭씨 38도 이상 발열·기침 즉시 병원을

중국 여행 중엔 농장·전통시장 피하고 손발 깨끗이 해야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H7N9), 이하 AI]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중국은 공포에 휩싸였다. 3월 말 중국 상하이시 등에서 AI 첫 감염이 확인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확인한 AI 감염 환자 수는 4월 18일 기준 총 83명이다. 이 중 17명이 사망했다.

AI는 닭·오리 등 가금류 및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전염병이다. 환자들은 어지러움과 발열·기침·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AI 바이러스는 조류와 다른 유전자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종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고병원성 AI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증거는 없다.

AI는 열에 약해 조리한 오리·닭 요리는 안심

미리 AI에 대해 알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먼저 AI는 일반 감기와 구분하기가 힘들어 그냥 지나치기 쉽다. 섭씨 38도 이상의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 의심·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거나 가금류와 접촉한 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게 좋다.

AI 확산으로 오리·닭 등 가금류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믿을 게 못 된다.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직접 생고기를 요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사람들도 주의해야 한다. WHO는 사람 간에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여행 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 질병관리본부도 WHO의 조치에 따라 현재까지 여행자제령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가급적 가금류 농장, 전통시장 등의 방문은 피하는 게 좋다. 특히 국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안후이성과 상하이시는 안전을 위해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중앙포토

중국에서 AI 첫 감염이 확인된 이후 국립인천검역소는 중국 입국객에 대해 체온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예방수칙 등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양치질 등을 잘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에티켓을 잘 지킨다.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 G

글·장치선(중앙일보 헬스미디어 기자)

AI 감염 예방수칙

-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 지키기
- 호흡기 증상(기침·숨 가쁨·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 피하기
- 실내를 청결히 하고 자주 환기하기
- 해외 AI 발생 지역 방문 자제하기
- AI 발생지역 방문 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항만에서는 국립검역소에, 귀국 후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기

자료: 질병관리본부, 대한감염학회

"책 읽기의 행복 우리 함께 나눠요"

'세계 책의 날' 맞아 북 콘서트 등 행사 다채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저작권의 날)'이다.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제정한 날로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책을 읽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의 축일(St.George's day)과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동시에 사망한 날에서 유래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이날을 기념한다. 스페인에서는 책과 장미의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영국은 이날을 전후해 한 달간 부모들이 취침 전 어린이들에게 20분씩 책을 읽어주는 '잠자리 독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출판 관련 단체와 전국 대형 서점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하는 이날을 기념해 4월 23일 당일 '책 드림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는 장미꽃 증정, 작가 사인회 등 다양한 순서로 구성됐다.

지난해 문체부는 국민 공모를 통해 4월 23일을 '책 드림의 날'로 정했다. '세계 책의 날'을 대신할 애칭으로, 사랑하는 연인·가족·친구 등에게 책으로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선정했다. '책 드림'은 책을 드린다는 뜻과 영어 'Dream'의 뜻을 함께 지니고 있어 꿈과 소망, 희망을 찾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답게 이번 행사에는 책을 선물하고, 주고받는 다양한 시간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행사에 참여하는 100명의 시민들에게 선착순으로 책과 장미꽃을 증정한다. 아울러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가 마련한 특별 부스에서는 '1헌책 1새책 바꾸기'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서할인 행사와 유명 동화책의 원화 전시회도 열린다.

특별한 강연과 공연 순서도 준비됐다. <엄마와 딸> <너를 위한 노래>의 저자 신달자 시인이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오랜만에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 뒤에는 사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북 밴드 '책의 노래, 서울'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도 열린다. 이 밖에 어린이 동요 합창단의 공연과 가수 인순이씨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G

글·백승아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난해 '독서의 해'를 맞아 열린 '2012 손 안 애서(愛書)' 사진부문 우수상 수상작인 금기열씨의 '책 향기 가득한 곳에서'.

2013 '책 드림 데이' 행사

일시 4월 23일(화)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교보문고(광화문점) 옥외 행사장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행사 주요내용
장미꽃·책 한 권 나눔 이벤트, 도서할인 판매, 1헌책 1새책 바꾸기, 원화 전시회, 시인 신달자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책의 노래, 서울' 북 콘서트, 인순이 축하공연

기획특집

깨어나라! 창조경제 아이디어가 일자리다

1 더하기 1은 2라고 답하면 뭘 모르는 당신.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답하면 유행을 좀 아는 당신. 귀요미도 아닌 다른 답을 찾는다면? 뭘 좀 아는 당신. 뭘 좀 아는 미국의 한 대학생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만든 인터넷 친구맺기가 2013년 현재 9억 명 이상이 가입한 세계 최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으로 성장했다. 흔한 인맥도 정보통신기술(ICT)과 만나니 창의적 사업으로 탄생한다. 창조경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내놓고, 아이디어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해 창의적 자산으로 구현되는 것, 현실이 된 창의적 자산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성장을 이뤄가는 그것이 박근혜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추진 중인 창조경제다.

일러스트: 김영훈

창조경제는 시대정신

창의적 상상력·과학기술·ICT 결합으로 새로운 산업·양질의 일자리 창출

박근혜정부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국정 핵심 키워드로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란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개인의 창의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하고 양질의 토양·환경에서 성장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짜파구리로 돈 버는 것이 창조경제? 맞다. 지난 2월 공중파 예능프로그램(MBC 일밤 '아빠 어디가')에서 소개된 '짜파구리'가 집에서 해먹던 메뉴에서 직장 구내식당에 진출한 데 이어 해당 제조사인 농심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농심은 4월 12일 자사의 '짜파게티'와 '(얼큰한) 너구리'를 함께 끓인 '짜파구리'가 일부 기업체 구내식당의 단체급식 메뉴로 등장했다고 공개했다.

이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콤보'로 판매되고 있다. 덕분에 농심은 지난 3월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8퍼센트, 20퍼센트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다.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 새로운 수요,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짜파구리도 기존의 장수상품인 짜파게티와 너구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입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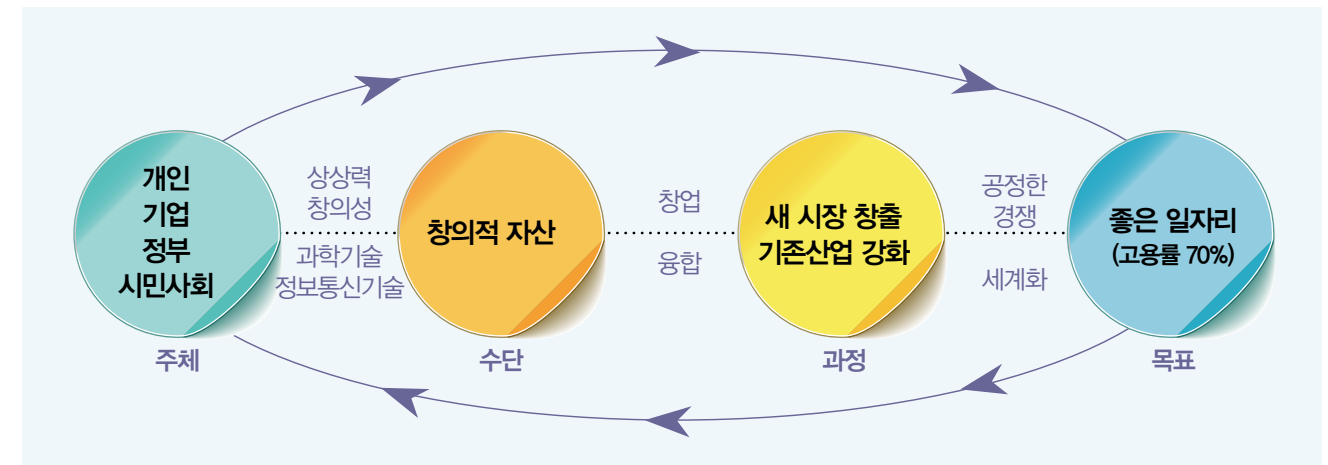
일본 광고회사가 이면지에 광고를 삽입한다는 수업내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출력물 위아래에 광고를 삽입,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출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드투페이퍼(ADD2PAPER)의 경우는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해 성공한 사례다.

스물여섯 살 전해나씨가 2010년 시작한 애드투페이퍼는 지난해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KB국민카드, 맥도날드,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의 60~70개 업체가 애드투페이퍼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다.

김치의 생산 공정을 과학화하고 온라인몰에서 판매해 '김치 독'이란 브랜드를 성공시킨 대학생 노광철 대표는 '레드오션'으로 불리던 김치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시켜 창업에 성공한 경우다.

중앙포토

가수 싸이가 4월 13일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고 신곡 '젠틀맨'을 열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싸이가 '젠틀맨'의 '시건방춤' 최초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 콘텐츠 가치를 인정한 모범 사례라고 언급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골프존과 같이 센싱기술·3D그래픽·증강현실 등 기존 기술에 '전천후로 즐기는 골프'란 아이디어를 입혀 성공한 사례도 있다. 2000년 김영찬 골프존 회장이 노후 일거리를 찾아 시작한 골프존은 현재 시가총액 7,600억원의 규모로 성장했고 약 2만5,000명의 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 최근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며 이들 창업가들은 다양한 창조경제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부터 국정 핵심 키워드로 창조경제를 제시해온 데 이어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창조경제를 추진할 핵심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며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왔다.

'창조경제'란 용어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람은 2001년 〈창조경제〉를 출판한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다. 그는 "창조경제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경제적 자본과 상품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호킨스는 창조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창조산업을 시장규모순으로 연구개발·출판·소프트웨어·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산업디자인·영화·음악·완구류·광고·공연예술·건축·공예·비디오게임·패션·미술 등을 제시했다. 지식·정보보다는 문화산업의 확장된 영역으로 창조산업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 호킨스가 말한 본래의 창조경제와 박 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와의 차이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창조경제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3월 24일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 정부의 실현전략'이란 보고서를 발표, "창조경제의 협의의 개념은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뜻하며 광의의 개념은 경제 전반의 성장 능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전략 또는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만 의존하던 외연성장 체제에서 인적자본·기술혁신력 등에 기반을 둔 내연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신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은 창조경제의 시대적 요구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회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패러다임의 변화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관련 발언들을 종합하면 창조경제란 '창의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창의적 자산이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4월 2일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창조경제와 그 성공 조건'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에 대해 ▶창조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산업 전 분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취임사(2. 25)

"40년 전을 보니까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고 6대 전략산업을 육성했는데, 그게 다 효자 노릇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바탕 위에서 시대 흐름에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서 과학기술이나 ICT산업 부문, 문화콘텐츠 등을 융합해서 창조의 꽃을 피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환담 중(3. 20)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회(3. 22)

"창의력이 곧 경제적인 이익과 집결되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건전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적인 전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회(3. 25)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경험이 창의적 사고로 연결되어 융합형 인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회(3. 28)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벤처 창업이 있어야 하고, 또 활발한 벤처 창업을 위해서는 벤처 1세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금융 지원도 융자보다는 투자방식으로 변화해야 되겠고, 벤처 1세대뿐 아니라 해외동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회(4. 3)

"창의와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고,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을 위한 규제는 빈틈없이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16회 국무회의(4. 9)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4월 8일~11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밉(MIP)TV 2013에서 3D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했다. 3D영상물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의 주요 영역으로 꼽힌다.

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적 인력의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자산 거래 활성화 ▶융합적 연구개발 사업인프라 구축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를 벤치마킹한 창업 금융의 원활한 작동 ▶대·중·소기업 상생 구조의 정착 ▶창의력 저해하는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도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기보다 이전 정부의 투자 노력 활용 ▶왕성한 투자와 창업을 위한 기술 거래와 기업합병(M&A)과 같은 창조시장 활성화 ▶혁신기업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엔젤투자와 같은 창조금융 기반 확충 ▶기업이나 개인들의 창발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파와 공교육 혁신과 같은 경제사회제도 개혁 ▶정부 부처 간,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제언했다.

이와 같은 제언들에 박 대통령이 밝힌 개념을 대입하면 창조경제는 아이디어를 하나의 씨앗으로 볼 때 기름진 토양(과학기술·ICT 역량, 도전적 문화, 지식교류 네트워크, 이종 분야 간 융합 활성화 등)과 좋은 환경(지식재산 보호제도 선진화, 규제 합리화, 자금 및 금융·조세지원, 공정경쟁 환경과 제도 등)을 만나 창업 혹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줄기로 자라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란 꽃을 피운 다음 양질의 일자리란 결실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로 요약된다.

이러한 창조경제 생태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창업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실해진다. 창조경제의 부상과 함께 창업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창조형 창업'이 부족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4월 14일 발표한 〈창조형 창업이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1년 국내 창업 중 고부가가치 제조업, ICT, 금융서비스, 전문서비스, 교육업 등 지식산업의 창업 비중은 15.4퍼센트에 그쳤다.

국내 기업의 신생률은 2001년 28.9퍼센트에서 2011년 20.2퍼센트로 하락했다. 18~64세 인구 중 현재 사업을 시작했거나 42개월 이하로 경영하고 있는 '초기 창업활동 비율'은 2001년 12.3퍼센트에서 2012년 7퍼센트로 떨어졌다. 국내 벤처캐피털 규모는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3퍼센트로, 창업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 0.175퍼센트, 미국 0.088퍼센트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는 시작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 프로그램이 지난 3월 19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대국민 미래의식 설문조사' 결과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출발점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전국 성인 남녀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8퍼센트가 '창조경제에 대해 기대한다'고 응답했으며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4.9퍼센트에 그쳤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기대한다'는 응답이 65.1퍼센트로 '기대하지 않는다'(34.1퍼센트)보다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 '일자리 창출'(38.3퍼센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를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 하와이대 교수는 교육개혁 문제를 지적했다. 데이터 교수는 4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과거에 잘했던 것들을 다시 재조합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빠르게 흡수해 자기화시키는 데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창조경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공부에만 몰입하는 교육으로 인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노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결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발점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인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란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의 하나로 창조경제를 선택했다.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시대정신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로 나아가는 신경제 패러다임의 구심점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 창조경제를 통해 씨앗을 만들고 결실을 맺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역할이다.

4월 13일 '월드스타' 가수 싸이가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로 세계적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사상 최단 기간 만에 1억 뷰를 달성, 세계 팝 역사에 또 한 번 대기록을 썼다. 자신의 기록을 다시 깬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50년간 경제발전에 있어 새로운 기록을 써왔다. 이제 우리 스스로 그 기록에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화제의 책
〈창조경제의 창조산업〉

'부와 일자리 창출의 경제전략'이란 부제가 붙은 〈창조경제의 창조산업〉은 창조경제의 본질과 창조산업을 정의한 뒤 각국의 창조산업 사례들을 살피고 있다. 또한 본래의 창조경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의 창조적 결과물의 경제적 활용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그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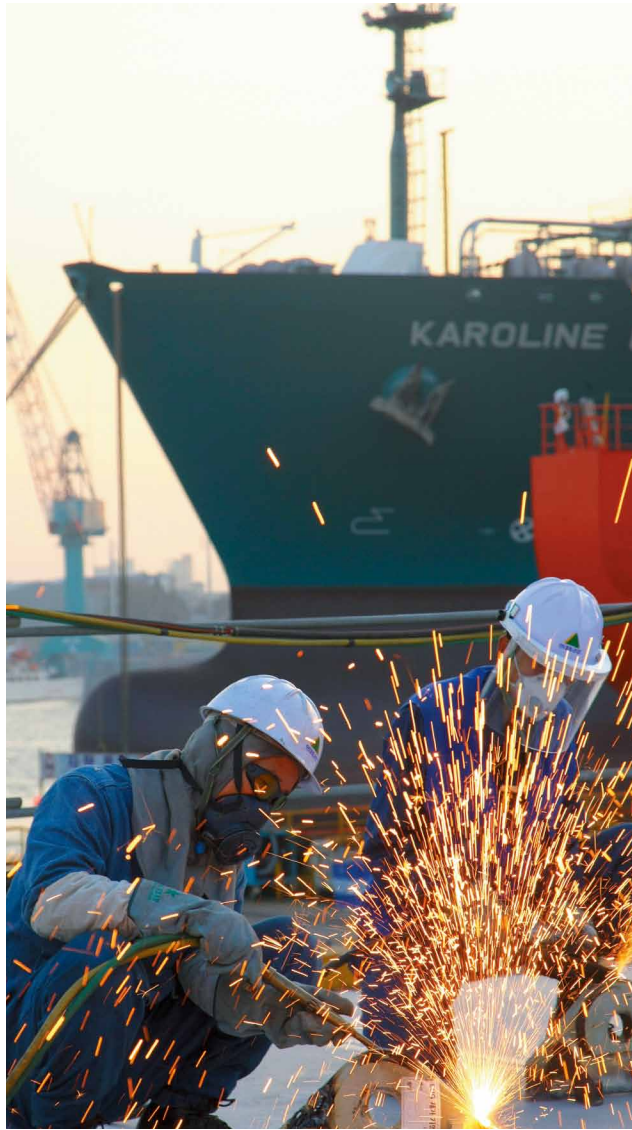
〈창조경제의 창조산업〉은 크게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을 살핀 1장과 창조경제의 개념을 확장한 2장으로 구성돼 있다.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이론과 사례'란 제목의 1장에서는 창조성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창조경제의 배경과 개념을 두루 살폈다. 이를 기반으로 창조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영국·프랑스·호주·이스라엘 등의 창조산업 추진체계 모형을 설정하고 실제 사례들을 분석했다.

'창조경제의 새 경영 패러다임의 본질'이란 제목이 붙은 2장에서는 창조경제의 전형과 테크놀로지의 융·복합적 파생 사례를 검토했다. 디즈니가 창조문화경제의 원형 크로스미디어라면 해리 포터의 스토리노믹스는 영국 콘텐츠와 미국 마케팅의 융합이라는 비교 분석이다. 또한 융·복합 파생 사례들을 관통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의 '한류믹스' 사례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는 영역에서의 창조경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김기현·김현식 지음 | 범한·2만3,000원

ICT와 융·복합… 조선 불황 파고 넘다

2011년 세계 첫 건조 인도 후 120척 수주

세계 1위 국내 조선산업은 수년 전부터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오고 있다. IT를 선박에 결합한 '스마트십(Smart Ship)'이 대표적이다. '조선IT융합'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세계 1위 조선소 현대중공업을 찾았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디지털용접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현장용접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

"IT와 조선기술이 결합한 스마트십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입니다."

4월 15일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본사 3안벽. 독일의 함부르크수드사에서 수주한 1만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의장 작업이 한창이었다. 의장은 장비나 장치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선박 주위에는 용접공들이 소조립부에서 옮겨진 블록을 용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용접 시스템과는 사뭇 달랐다.

대조립1부의 서창훈(53) 기장은 연신 LCD(액정표시장치)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용접 전압과 전류량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가 사용 중인 장비는 현대중공업이 2010년 11월 개발한 '디지털 용접 시스템'이다.

서 기장은 "예전에는 작업자가 사용하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경험에 의존했기 때문에 작업자마다 용접 품질에 차이가 났다"며 "하지만 디지털 용접 시스템을 활용하면 용접 초보 작업자도 숙련자와 같이 용접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최고의 품질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범 운용 중에 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20퍼센트가량의 생산성 향상과 연간 작업시간 100만 시간 절감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의 유·무형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있는 5미터가량 높이의 엔진컨트롤룸에서 만난 방상택(33) 시운전부 기사는 선박통합제어장치 등 각종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방 기사는 "이 배는 엔진 움직임과 발전기 관련 정보, 냉각시스템 등 배 전체의 움직임을 선박 내부 곳곳은 물론 육상에서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기능을 갖춘 스마트십"이라며 "각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건조 중인 스마트십은 연료절감이 가능한 '버전 2.0'이다"고 덧붙였다.

국내 조선업계가 다시 한번 세계 조선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제조기술과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조선IT'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IT융합을 선박에 결합한 '스마트십(Smart Ship)'이다. 스마트십은 선박 엔진과 제어기, 각종 기관 등의 운항 정보를 위성을 통해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선박 내 통합 시스템을 원격 진단 및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이다.

육상에서 운항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원격제어

현대중공업은 2008년 3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대와 공동으로 스마트십 개발에 착수, 3년 만인 2011년 세계 최초로 원격제어·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십을 선보였다.

스마트십 기술은 선박 기관감시제어장치와 항해정보기록장치, 추진제어장치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한 독자적인 선박통합통신망(SAN) 구축이 핵심이다. SAN은 지식경제부의 조선 분야 IT융합의 첫번째 R&D과제(IT 기반 선박용 토탈솔루션 개발)로 2008년부터 3년간 총 27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다.

현대중공업 측은 SAN을 통해 수집·분석·가공한 정보는 선박의 경제적 운항관리는 물론 선박 내 기자재 재고관리 등 차세대 부가서비스로 발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SAN은 단순 선박의 통합 감시시스템 수준을 넘어 선박 건조와 인도에서 폐선까지 선박의 라이프타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척에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선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 운항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십이 선주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초의 스마트십은 덴마크 AP몰러사가 2008년 발주한 4,5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지난 2011년 3월 인도됐다. 현대중공업은 첫 스마트십을 인도한 이후 현재까지 총 120척의 스마트십 시스템을 수주했으며, 이 중 44척은 이미 전 세계 바다를 운항 중이다.

현대중공업의 스마트십 건조는 조선업계의 위기감에서 나온 혁신이었다. 조성우(51) 통합전산실 상무는 "세계 조선시장은 수년 전부터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었다. 중국 등은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오는 상황이었다. 자동차의 자동주차기능 등과 같은 혁신이 필요했다. 중국이 쫓아올 수 없는 기술을 찾다가 IT로 무장된 선박을 개발하게 됐다. 중국이나 제3국 조선소에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려면 5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운전부 방상택 기사(왼쪽)가 엔진컨트롤룸에서 선박통합제어장치를 통해 스마트십 시스템의 가동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IT융합 시장 활성화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조선IT융합 혁신센터'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돼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IT융합 혁신센터는 ▶선박 에너지 절감 지원 솔루션 ▶선박 안전 운항시스템 ▶선박 건조 응용기술 개발 등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자동으로 최적운항상태 유지할 신기술도 곧 적용

특히 선박의 운항 정보를 모니터링·제어하던 기존 스마트십(Smart Ship 1.0)의 수준을 넘어 선박이 연비·배출가스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최적의 운항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스마트십(Smart Ship 2.0) 구현을 추진 중이다. 신기술은 시험 과정 및 평가를 거쳐 2014년 하반기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조 상무는 "스마트십은 경제적 운항과 안전사고 예방, 경쟁력 확보에 따른 마켓리더십을 갖게 된다"며 "ICT가 조선·기계·자동차·항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과 사진·이보람(세계일보 울산주재기자)

보청기 구입 자기비용 4만원! 젊은이 셋 따뜻한 마음 통하다

"난청 고통 서민 돕자" 뜻 이뤄내

도전은 젊은이의 특권이다.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벌일 수 있어야 사회도 변화한다. 딜라이트는 저가 보청기 기업이다. 값비싼 보청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노인을 돕기 위해 의기투합한 대학생들이 창업했다. 이들의 도전은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제 한국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보청기를 구하지 못해 난청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딜라이트는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보청기를 공급하며 성장해가는 기업이다.

보청기 전문기업 딜라이트의 연구개발실은 3D 프린터가 뿜어내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연구원들의 책상 위에는 사람 귀 모형, 광학현미경, 보청기용 반도체 칩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젊은 연구원들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했다. 이들은 현미경과 핀셋을 사용해 제품을 조립하며 더 나은 보청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팀을 이끄는 김병준(35) 팀장은 "이곳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장소"라고 소개했다. "부유한 분들은 글로벌 기업이 제작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난청으로 고생하는 서민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딜라이트는 2009년 부천 가톨릭대를 다니던 김정현(27) 대표가 연세대의 원준호(27)씨,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김남욱(27)씨와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창업 자금은 8,900만원. 김 대표가 5,000만원을 마련했고 서울시 창업지원자금 1,2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2,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유치하며 기업을 시작했다. 김정현 대표가 밝힌 사업 기획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아픈 사람을 돕는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사회적 기업에 도전한 것은 당시 대학생이어서 가능했다고 한다. 도전정신이 가득한 젊은이였기에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는 한국에 사회적 기업의 개념조차 들어오지 않은 시기여서 주로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마침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청각장애인을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가 너무 비싸 구입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대학 연합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배경입니다."

보급형 개발 뒤 직거래 방식으로 가격 낮춰

열정적인 젊은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보청기 가격을 높이는 유통구조 개선법,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보청기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 그리고 주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섰다. 김 대표는 먼저 유통단계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췄다. 보청기 회사는 대부분 외국 투자 법인이다. 글로벌 기업이 제조한 보청기를 한국에서 다시 가공해 유통하고 있다. 기업이 유통업체에 넘긴 제품을 다시 개인사업자가 받아서 판매한다. 김 대표는 직거래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대폭 낮췄다.

제품을 직접 개발한 것도 딜라이트 가격 경쟁력의 배경이다. 보청기는 대단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귀에 넣을 수 있는 보정물에 보청기용 칩을 넣어 조립하면 된다. 성능이 좋은 칩을 구해서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난청 해결을 위해 보청기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을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을 고를 수 있다면 제조 단가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이들이 시장에 출시한 보급형 보청기 가격은 34만원. 시중 제품이 150만원인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다. 34만원에 내놓은 이유도 흥미롭다. 정부가 청각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청기 구입 보조금은 30만원이다. 여기에 자비 4만원만 들이면 누구나 난청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김병준 팀장은 딜라이트 보청기의 수준을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기업의 보청기 점수는 95점 수준입니다. 그들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은 있지만 한국인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내며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가 정책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김 대표는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해왔다. 그는 앞으로 보청기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한국은 1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보청기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대표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착한 가격에 공급하는데 싫어할 고객은 없다"며 "한국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며 계속 시장을 공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정물에 보청기용 칩을 고정하는 공정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딜라이트 개발팀은 지금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습기에 강한 보청기가 좋은 예다. 보청기 사용자의 불만은 장마철에 더 높아진다. 습기 영향으로 보청기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기 때문이다.

습기에 강한 제품 개발이 당면한 과제

전지 교환과 충전이 편한 보청기도 개발팀이 매진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보청기에 들어가는 전지 교체는 사용자 불만의 단골 메뉴로 꼽히고 있다. 보청기 사용자 대부분이 노인이다 보니 초소형 건전지를 교체하는 일이 고역이다. 김 팀장은 습기에 강하고 건전지 교환이나 충전이 쉬운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해진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수시로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3명이 의기투합하며 시작한 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 수는 42명으로 늘었고 자본금도 10억원이나 쌓였다. 지난해 보청기 시장 점유율 6퍼센트를 차지한 딜라이트의 매출은 4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조용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보청기 시장 가격이 30퍼센트 가까이 하락했다. 이 때문에 외국 보청기 회사에서 항의를 받은 일까지 있다.

기존 보청기 업체와의 관계도 껄끄럽다. 하지만 김정현 대표는 여유 있는 표정이다. 이제 한국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난청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사원의 80퍼센트가 35세 미만인 젊은 기업이 이끌어낸 값진 변화다. 김 대표는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가 주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며 기업을 경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G

글·조용탁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창의적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 나가 놀아라"

게임기업 선데이토즈의 사무실 분위기는 자유분방하다. 밝은 파스텔톤의 인테리어도 한몫하지만 캐주얼 복장의 젊은 직원들을 보면 일을 하는지 놀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곳에 모인 젊은이들은 세상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해줄 게임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선데이토즈 개발팀 직원들이 새 게임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다.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요즘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먹힐 것 같나요?"

이의중 선데이토즈 개발사업 이사가 분위기를 잡으며 질문을 던졌다. 덩달아 심각해진 팀원들이 제각기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야채가 어떨까요. 세상을 구하는 친환경 야채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무, 양파, 홍당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유럽에서는 탄탄한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 뜨고 있어요. 캐릭터보다는 게임작가와 함께 스토리라인을 정리하며 게임을 구상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스포츠 게임이 없잖아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야구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으면 합니다."

4월 17일 오후 경기도 분당에 있는 선데이토즈 본사 회의실에서 오간 대화다. 새로운 게임 개발을 앞두고 열린 아이디어 회의 자리였다.

한쪽 벽이 다양한 게임 캐릭터로 장식된 회의실에서 이들은 태블릿피시와 노트북을 돌려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미국과 유럽의 게임 동향과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요 게임을 분석하며 이들은 애니팡의 뒤를 이어갈 선데이토즈의 차기작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3시간여의 회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였다. 이 이사는 "매주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팀원들에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을 때까지 밖에 나가서 좀 더 놀다 오라"고 주문했다. 재미있게 놀아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이다.

3월 출시한 애니팡 사천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데이토즈는 게임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통해 한국 SNS 기반 게임시장을 제패한 기업이다. 이들의 대표작 애니팡은 무려 2,50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애니팡의 성공을 보고 수많은 유사게임이 나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사라졌고 여전히 애니팡이 게임 사용자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3월 말 출시한 애니팡 사천성도 게임 순위 6위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좋다.

그간 애니팡이 보여준 성공 스토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남들보다 한발 먼저 도전했기에 지금의 애니팡이 가능했다.

선데이토즈는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이정웅(32) 대표, 임현수(31) 이사, 박찬석(33) 이사가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이 대표는 한게임 개발자였고, 임 이사는 안철수연구소를 거쳐 엔씨소프트에서 일했다. 박 이사는 T3엔터테인먼트에서 댄스게임으로 유명한 '오디션'을 만들었다.

스마트폰 SNS 게임 먼저 치고 나와 성공

셋은 각자 회사를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살린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게 세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임 공간 '토즈'에서 만나 게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회사 이름을 선데이토즈로 지은 배경이다. 아이디어가 점차 틀을 잡아가자 결국 사고를 쳤다. 2009년 자신들의 게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보자며 회사를 설립했다.

아이디어는 넘쳤지만 사업 자금이 부족해 이 대표 어머니가 운영하던 학원 구석에 조그만 방을 얻어 게임을 개발했다. 공들여 개발한 게임은 싸이월드 앱스토어를 통해 소개했다. 애니팡·애니사천성·아쿠아스토리 등이다. 이때 만들어진 애니팡이 변화를 거듭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다양한 게임을 내놓았지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싸이월드를 찾는 방문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수많은 회의를 한 끝에 스마트폰 기반의 게임 개발을 결정했다. 이때 그의 눈에 보인 SNS가 카카오톡이었다.

"수익 모델이 필요했던 카카오톡이 게임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애니팡이 카카오톡의 '게임하기'에 등장한 배경이지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저도 믿기 힘든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1,000만 명이 애니팡을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애니팡의 인기는 엄청났다. 두 달 만에 2,000만 명이 다운받으며 국민게임에 등극했다. 서버를 관리하던 임 이사는 "직장인이 서버에 몰리는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컴퓨터를 떠날 수가 없었다"며 "밤새 일하다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다시 돌아와서 일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세계적 명품 선보일 꿈 향해 열정 활활

지금 선데이토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애니팡의 성공을 이어갈 새로운 게임 개발이다. 이를 위해 이의중 이사는 미국과 유럽의 게임 개발 흐름을 연구하며 한국 게임산업의 변화를 점치고 있다. 그는 "경쟁사 게임 분석보다는 산업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스마트폰 시대에 어떤 게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SNS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게임은 무엇이 될까요. 초등학교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게임을 선호할까요. 질문은 끝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국 아이디어가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선데이토즈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시장 진출이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게임을 꿈꾸고 있다. 이정웅 대표는 "매주 일요일에 만나 게임을 개발했던 열정은 그대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명품게임을 선보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글·염지현(포브스코리아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문자투표' 대박 만족 않는다 우리는 늘 고민 진행형

기술·아이디어를 콘텐츠와 융합… 특허 60건·출원 260건 낸 '창조기업'

언제부턴가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리모컨 대신 휴대전화를 들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문자투표'를 보내기 위해서다. 이제는 보통명사가 된 '문자투표' 서비스를 만든 기업은 경기도 판교에 있는 18년 차 벤처기업 '인포뱅크'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미디어콘텐츠와 융합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창조기업'이다.

자신이 던진 표로 텔레비전 속 경연자 순위가 바뀌면 야릇한 기분이 든다.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는 그저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문자투표'는 일상이다. 방송국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청자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법부터 고민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디어 문화다. 시청자가 미디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매스미디어가 쌍방향 소통 창구로 바뀐 것이다.

문자투표는 MO(Mobile Originated)라고 불리는 '양방향 메시지 서비스'다. 1998년 인포뱅크에서 처음 개발했다.

인포뱅크 직원들은 늘 창조적인 일, 새로운 일을 찾는 데 주력한다.

과학기술에 아이디어를 융합하고 콘텐츠 산업과 접목하면서 문화가 한 단계 발전했다. 새로운 문화현상이 만들어지면서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났다. 인포뱅크는 '창조경제'를 만드는 전형적인 '창조기업'이다.

문자메시지 기반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도

2명의 창업자로 시작한 인포뱅크는 '#OOOO'으로 대표되는 이 서비스의 국내 특허를 가진 벤처기업이다. 한국의 방송에서 쓰이는 문자투표는 모두 인포뱅크를 통해 이뤄진다. 문자투표가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이 회사는 지난해 기준 86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중견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공가도를 달린 것은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문자투표는 생소했다. 관련 문화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인포뱅크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박태형 인포뱅크 대표는 "기술을 개발할 당시는 외환위기여서 국제 특허를 낼 1,000만원의 자금조차 없었다. 그때 국제 특허를 냈더라면 현재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문자투표 시장을 모두 가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자투표 문화가 성숙될 때까지 인포뱅크는 여러 방송사를 찾아다니며 기술을 알렸다. 하지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술이 개발되고 한참이 지난 2005~2006년에야 상황이 변했다. 각종 방송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쏟아내면서부터다.

방송 콘텐츠가 달라지면서 문자투표 기술은 각광을 받았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방송 콘텐츠를 바꾸는 등 기술과 문화가 상호 시너지를 발휘한 것이다.

인포뱅크가 가진 메시징 기술 관련 특허는 60건에 달한다. 출원한 것까지 합하면 260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인포뱅크는 최근 문자메시지(messaging)–미디어(media) 사업을 넘어 모바일 결제(money)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4월 말 출시되는 '바로바로'라고 하는 서비스다.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 사이에서 인포뱅크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도록 만들어 직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문자메시지만으로도 현지 농산물을 저렴하게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포뱅크는 사업영역을 유통과 금융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 혁신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술로 기대를 모은다.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제어하는 기술 개발중

사업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인포뱅크의 차세대 주력 제품은 모바일(mobile)이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자동차를 의미하는 '모바일'이다.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의 전자장치 전반을 제어하는 스마트카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미 한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 제품에 인포뱅크의 전장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인포뱅크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국제 표준에 맞춘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일반적인 전자장비 제어에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 각 부품의 고장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점검하는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많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포뱅크는 기본 기술력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업을 만들고 유관 사업을 찾아 접목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이 회사는 공학을 전공한 두 명의 대표가 함께 만든 회사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장준호 박사와 외국계 은행을 다니던 박태형 대표가 1995년 동업으로 설립했다. 1996년 서울시에 설치된 버스안내시스템(BIS)을 만든 회사로도 유명하다. 인포뱅크의 특징은 단 한 번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벤처업계에서도 늘 새로운 것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G

글·박상주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박태형 인포뱅크 대표

"새로운 시장 만들기 때문에 우린 경쟁 걱정 없다"

'문자투표'는 어떻게 나왔나

"외환위기 시절 어렵게 회사를 경영할 때였다. 휴대폰을 쥐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다. 운동 경기를 보면서 점수 맞히기를 할 수도 있고, 가수들이 공연할 때 팬들이 인기투표를 해보고 싶을 것 같았다. 일반 여론조사는 많아야 1,000여 명에게 의견을 물어보는데 문자투표를 하면 1,000만 명도 가능하겠다 싶었다. 바로 특허로 등록했다."

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나

"우리는 벤처기업이다. 위험을 안고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로 시장에 뛰어드는 대신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벤처기업가의 역할이다. 사장뿐 아니라 전 구성원들에게도 이런 벤처기업가 정신을 가져달라고 주문한다."

새로운 일을 만드는 데 투여하는 업무의 비중은

"80 대 20이다. 80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업무를 하고 20은 늘 새로운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데 들인다. 이 시간 동안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고안하기도 한다. 직원 모두 업무 시간 중 20퍼센트를 새로운 창안에 할애한다. 연중 업무결과를 통산해보면 실제로 20퍼센트 이상이 신기술이나 신사업 등 새로운 결과물이다. 회사 전체 수익의 20~30퍼센트도 반드시 신제품 개발에 들인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걸 창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이라서 실패에 따른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고 시장을 놓고 다른 업체와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타격이 적다. 새로운 것은 보편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가 변해가는 방향을 잘 짚으면 트렌드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크다."

사업 방향이 창조기업형이다

"창조기업의 방향이라고 특정해서 생각해본 것은 아니다. 다만 미래에 사업이 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우리의 사업 방향이 창조경제의 방향과 일치돼 반갑다.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곳에 더 주력할 예정이다."

일반 정보기술(IT) 기업과 달리 문자메시지 사업에서 자동차 전자장치로 사업을 확대한 이유는

"자동차도 모바일이다. 휴대전화가 들고 다니는 모바일 단말기라면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모바일 단말기다. 이런 의미에서 4년 전부터 자동차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았다. 일반 자동차 전자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안에서 즐기는 통신과 엔터테인먼트 등이 모두 포함된 다. 모두 새로운 기술이다."

'식물공장' 보급 세계농업 혁신 꿈

카이스트 학부생 6명, 창의적 틈새시장 찾다 농업에서 가능성 발견

4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보육센터 내 작은 연구실. 수업을 마친 20대 청년 6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건물 내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이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여러 대의 노트북과 화학용품·비커·전자회로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실내 풍경은 여느 연구실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연구실 내 작은 방의 문을 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방 한쪽에 세워진 냉방기는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환한 조명 아래에서는 푸른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왼쪽에는 '퀴누아'라 불리는 작은 식물도 보인다.

"식물공장이에요. LED 조명 대신 형광등과 고압나트륨 램프 등을 사용해 단가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양과 습기 등을 조절하는 공조시스템을 접목시켰죠. 맛도 좋을걸요."

박아론(28)씨가 상추를 뜯어 보이며 말했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박씨는 현재 농업회사법인 '만나씨이에이'를 이끌고 있다. 지난 3월 법인 등록을 마친 만나씨이에이는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도심의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인공광원을 활용해 온도·양분·수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농작물 재배 시스템으로, 이들은 이를 '보급형 식물공장'이라 부른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장의 모든 제작 과정 직접 참여

만나씨이에이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창업회사다. 박아론(28)·전태병(25)·이효선(25)·장익준(22)·김동현(25)·임준기(23)씨 등 6명의 대학생들은 창업을 위해 8개월 전 의기투합했다. 산업디자인·기계공학·전자공학 등 전공은 가지각색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다. 각기 다른 재능을 살려 농업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농업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불균형에 주목했다.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자급률은 5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귀농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청년들의 비중도 적은 편이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관련 투자법이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박 대표는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수익성 있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체된 농업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이름도 '만나'라고 지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애굽)를 떠나 광야에 머물며 먹은 양식으로 '하늘에서 신이 내려준 선물'을 의미한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일군 '만나씨이에이'는 인공광원과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식물공장'을 개발한다.

이들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식물공장의 모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전자회로와 화학약품 등을 이용해 수차례 실험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화학기술과 전산·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이 동원됐다. 산업디자인 전공생인 박아론 대표와 장익준씨의 안목은 외관을 디자인하는 데 빛을 발했다.

투자를 전혀 받지 않았던 이들은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학생 신분에서 2,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마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 대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차와 물건 등을 팔아 자본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모바일이나 애플리케이션 쪽에 치중돼 있는 현실에서 농업회사 설립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농업법인으로 등록하려면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데 노지 재배를 하고 있지 않은 터라 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도시형 농업 진출… 불모지 중동서 시장 창조 기대

하지만 한계는 오히려 기회였다. 벤치마킹할 기업이 없다는 건 어찌 보면 경쟁이 없는 시장을 의미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세계 농작물 시장은 점점 작아지는 추세예요.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이 주요 수출국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식단이 점점 미국화돼 수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등 먹을거리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어요. 농작물 재배 환경은 열악해지는데 식량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으니 새로운 생산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개발하는 시스템은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박 대표의 믿음대로 식물재배시스템은 출발과 동시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첫 고객을 맞았다. 대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이들에게 식물공장 설계 및 시공을 의뢰했다. 설계는 마쳤고, 공조시스템 등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이들은 서울과 대전에서 시범사업 단위의 식물공장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상추 등 엽채류에 한정된 재배작물도 버섯과 인삼, 딸기 등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인들은 물론 평범한 농민 가정도 수경재배를 통해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갈 예정이다. 중동 등 원천적으로 농업이 어려운 지역에 기술을 수출하고 싶은 꿈도 가지고 있다. 박 대표는 '식물공장'이 안정적인 노후 설계의 대안이 됐으면 하는 꿈도 드러냈다. 컴퓨터만 다룰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물공장이 보급되면 노후 세대도 쉽게 농작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아론 대표가 식물공장에서 자라고 있는 상추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박 대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나씨이에이만의 창조정신으로 꼽는다. "식물공장은 활용되지 않는 농업 인력을 창출하죠. 저희의 아이디어가 밭농사의 시대에서 도시농사 시대를 여는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거라고 확신해요." G

글·백승아 기자 / 사진·김성태 객원기자

루펜리 이희자 대표는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살림하다 떠오른 아이디어로 창업"

주부 경험 살린 이희자 대표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얻는 게 있습니다"

주방에도 아이폰처럼 혁신을 불러온 제품이 있다. '음식물처리기는 냄새나고 지저분하다'는 편견을 깨고 네모 반듯한 하얀색 바탕에 밝은 녹색과 핑크, 스카이블루 등의 동그란 디자인을 넣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루펜(LOOFEN)'이다. 루펜은 국내 1호 음식물쓰레기처리기다.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에 이 대표의 성을 붙여 '루펜리'라는 사명이 탄생했다.

루펜리 이희자(59) 대표는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함을 제품으로 구현시켰다. '냄새가 안 나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있으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참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는 이 대표를 창업가의 길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남들과 다름없는 40대 주부로 살다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된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강이나 바다에 방출하는 걸 법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죠.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게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고사리나 시래기처럼 말리는 음식이 많은데, 먹다 남은 음식도 부패하기 전에 말리면 재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대표는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을 받아 1998년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개발에 매달렸다. 무역학과 출신의 남동생, 전기를 다룰 줄 아는 직원과 머리를 맞대고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내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다. 음식물을 말리는 기술까지는 성공시켰지만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냄새 제거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한 회사를 찾아가 "당신네 대표를 만나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다"며 열의를 보였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었다. 개발 2년여 만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루펜'이 탄생했다.

루펜리의 창조성은 디자인에서 발휘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술은 얻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이공계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술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오면 된다고 봐요. 이미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구현할 전문가만 찾으면 되죠. 1부터 100까지 모두 알아야만 창조가 이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창업 초기부터 과학기술에 디자인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디자인은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백색 가전 일색이던 국내 가전업계 시장에 역행하는 일을 벌였다. 와인색이 가장 과감한 시도로 여겨지던 때에 루펜에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입혔다. 밝은 녹색이나 핑크 같은 강렬한 색깔을 쓰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제품의 완성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디자인적으로 마무리가 덜 되어 있거나 투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쁘고 세련되어야 한다고 봤죠. 사람도 명품 옷을 걸치면 폼이 달라지는데 제품이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이 대표의 도전정신이 반영된 루펜 제품들은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단순함'을 무기로 한 루펜 제품들이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Red Dot)·iF 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 상을 수상했다.

"주부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주부들은 예쁜 걸 좋아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처리기라고 하면 지저분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디자인 콘셉트를 '깨끗함'으로 정했어요. 물방울 모양의 가습기를 만든 것도 틀에 박힌 네모난 가습기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였어요. 고객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 노력이 고정관념을 깬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루펜리의 창조정신은 기업문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루펜리 직원들은 과장·대리와 같은 직함 없이 모두 '매니저'로 불린다. 직원 모두가 '고객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다. 부서 역시 일반 회사처럼 영업부·경영지원부·기획부와 같은 구분 없이 '고객가치창조그룹' '고객가치지원그룹' '고객가치전달그룹'의 세 그룹으로 이뤄져 있다.

직원이 낸 아이디어, 제품에 반영하고 곧바로 보상

직원이 낸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품에 반영하고 곧바로 보상했다. 일상에서 발휘되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독려하기 위해 아침이면 다같이 유행하는 춤을 추기도 했다.

루펜리는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루펜'으로 유럽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세계 각지로 이미 진출한 상태다. 이 대표는 루펜의 인기를 잇는 차기 친환경 제품을 선보여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창조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으로 '실천'을 꼽는다. "생각은 누구나 해요. 머릿속에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천을 안 할 뿐이죠. 모두가 실패를 할까 봐 시작을 못해요. 그러나 실패를 하더라도 분명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G

글·김슬기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우리는 해보고 싶은 게 많을 뿐이다"

6명의 창작집단이 만드는 무국적 스타일 캐릭터 대박

작은 캐릭터 하나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창작집단이 있다. 6명의 디자이너와 프로듀서로 꾸려진 '스티키 몬스터 랩'이다. 이들이 만들어 낸 무국적 스타일의 몬스터 캐릭터는 3D 애니메이션·광고·티셔츠 등에 활용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과 함께한 이들의 작업이 상업적 결실을 맺고 있다. 디자인이 비즈니스를 낳는 '창조경제'의 현장이다.

카페 '공공장소' 앞마당에서 자기 피규어를 들고 있는 스티키 몬스터 랩 멤버들. 왼쪽부터 강인애·최림·부창조·황찬석씨. 인터뷰에는 이들 넷만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합정동의 카페 '공공장소'에 스티키 몬스터 랩(Sticky Monster Lab·SML)의 새 피규어 출시를 기념한 파티가 열렸다. 피규어는 영화·만화·게임 등에 나오는 캐릭터를 축소해 거의 완벽한 형태로 재현한 인형을 말한다. 폭설을 뚫고 100여 명의 팬이 몰렸다. 그중에는 어머니와 함께 온 중학생 소년도 있었다. 이들에게 SML은 스타였다. 다투어 새 피규어를 구입하고 SML의 사인을 받았다.

스티키 몬스터 랩은 디자이너 부창조(34)·최림(34)씨, 프로듀서 김나나(34)씨, 피규어 디자이너 강인애(33)·황찬석(32)씨, 마케팅 디렉터 여준영(43)씨 등 6명으로 구성된 창작집단이다. 그래픽디자인·피규어·광고·3D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CJ·대우건설·나이키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대기업과 협업을 해오고 있다.

"신비감을 깨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꺼리던 그들을 지난 3월 18일 서울 합정동의 카페 '공공장소'에서 만났다. 몬스터들의 본거지다. 1층 카페는 이들과 홍보대행사 프레인, 인디레이블 붕가붕가레코드의 매니지먼트사인 두루두루AMC가 공동 운영한다. 2층은 작업실이다. 인터뷰에는 강인애·부창조·최림·황찬석씨가 동석했다.

먼저 SML의 정체가 궁금했다. 카페도 하고, 화분도 만들어 팔고, 피규어는 물론 티셔츠와 아이폰 케이스도 제작하고, 자동차 외장 디자인까지 하는 이들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SML조차도 명쾌하게 내리지 못했다.

"우리도 그게 고민이다. 따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계속 해보고 싶은 게 많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작업을 쏟아내는 팀들이 10년 뒤엔 큰 팀이 되어 있다라.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시작은 2007년이었다. 최림씨는 "광고 제작사에 다니며 하청의 하청쯤 되는 일을 하다가 뭔가 '내 일'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박차고 나왔다"고 술회했다. 동종 업계에서 일을 의뢰하던 관계인 부창조씨와 의기투합했고, 영화제 기획자인 김나나씨를 영입했다. 제작자만으로 시작하는 여느 팀들과는 다른 시작이다.

"사람들이 가진 콤플렉스를 캐릭터에 적용"

〈러너스(The Runners, 2007)〉로 처음 등장해 지금껏 사랑받는 '몬스터' 캐릭터는 이때 탄생했다. 이들의 첫 단편 애니메이션 〈러너스〉는 이런 내용이다. 육상대회에 참가한 몬스터 청년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한다. 힘없이 돌아가던 그가 길바닥에 버려진 와플을 실수로 밟게 되었는데, 신발 밑창에 붙은 와플이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와플 신발'은 선풍적 인기를 끌고, 파리 날리던 와플 가게는 신발회사로 거듭난다.

다른 이야기도 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던 외톨이에게 분홍 강아지가 나타나 친구가 된다. 외톨이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컴필레이션 음반의 영상물로 제작된 〈로너(The Loner, 2011)〉다. 이렇게 대사도 없이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통통 괴물들이 펼치는 단순한 연기에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한다. "이건 내 얘기야!"

스티키 몬스터 랩의 몬스터 캐릭터는 단순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어두운 면에 일침을 가한다. 심플함 속에 감정의 심오한 의미를 담아내어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돈은 덜 받아도 재미있고 오래 끌고 갈 일 선호

사실 땅콩 모양의 팔 없는 통통 괴물들은 뭘 해도 어색하다. 누구나 가진 콤플렉스, 누구나 겪는 관계의 어려움, 누구에게나 있는 비틀린 내면을 대변한다. '몬스터 가상세계'를 통해 우리는 때로 현실 그 자체와 대면한다. 이 무국적 스타일의 몬스터들은 곧 SML 멤버들이자 또 우리가 아닐까.

"사람들이 가진 콤플렉스를 캐릭터에 적용했다. 팔 없는 아이, 머리가 분리된 아이 등 캐릭터는 단순할수록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다. 표정도 없다. 슬플 때 슬픈 얼굴 비추는 것보다 뒷모습 보여주는 게 더 슬프니까"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의 작업이 상업적 결실을 보기 시작한 건 2010년 월드컵 때 나이키와 협업하면서다. 첫 작업인 '레스페스트(RESFEST) 디지털영화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계기로 이 영화제의 후원사인 나이키와 일하게 됐다.

SML은 이후 영역을 확장해 피규어 디자이너·마케터를 영입했다. 나이키와 런던올림픽 한정판 티셔츠를, 닛산 큐브 자동차의 한정판을 만들기도 했다.

'파리 푸비즈 어워드 2012' 애니메이션 부문 최고상, '미국 더 크리에이터스 프로젝트 2011' 베스트 애니메이션 등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돈벌이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수입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할 때도 있다.

스티키 몬스터 랩의 영상 〈로너(The Loner, 2011)〉(위)와 〈러너스(The Runners, 2007)〉의 포스터.

이들은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무게를 두다 보니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즉, 돈을 덜 받더라도 재미있고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다.

SML에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대해 물었다. 디자이너 최림씨는 "디자인은 취향이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의 취향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영상과 책으로 제작한 〈파더(The Father, 2009)〉의 경우 어려서 음악한다고 속 썩인 내 모습, 은행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신 아버지, 그리고 그 무렵 취직한 사촌의 이야기가 녹아 있다. 누구는 취직하고 누구는 그 일자리에서 밀려나며,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 지금 신혼인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지도 모르겠다."

이들이 인터뷰 중 가장 많이 한 말은 '하고 싶은 일'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의 로망일 터다.

SML은 그런 면에서 남들에게 '꿈'이 되고 있는 존재다. 막연하지만 그들은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자신을 지키면서, 무너지거나 타협하지 않으면서. G

글·권근영(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창조경제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성공 사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합니다. 창업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고, 재도전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실패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부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
> – 박근혜 대통령,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회에서

올해 국가 연구개발·ICT 역량 총동원… 실질 창업과 이어질 창업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새 시대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소프트웨어·콘텐츠 핵심 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구현 등 5대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4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60년대 과학기술처, 1990년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과 정보화의 초석이 된 것과 같이 창조경제 시대에는 미래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연구개발 사업이 실험실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창업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

미래부 중심으로 생성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금융위원회가 돕고 중소기업청이 창업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반에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자극한다. 전국 과학관·우체국·도서관 등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한다. 이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 '창조경제 무한 상상마당'이라는 이벤트를 열어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영재학교·과학고·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에 융합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융합형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정보통신아카데미를 설립해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ICT 인력도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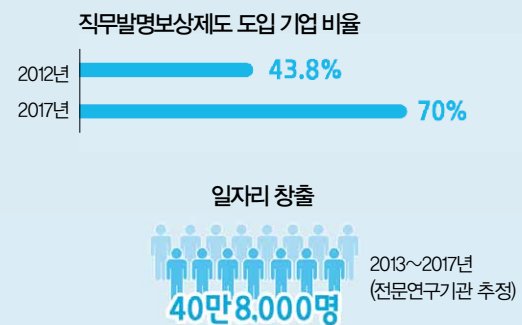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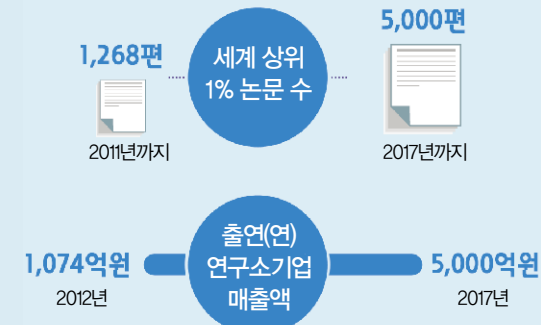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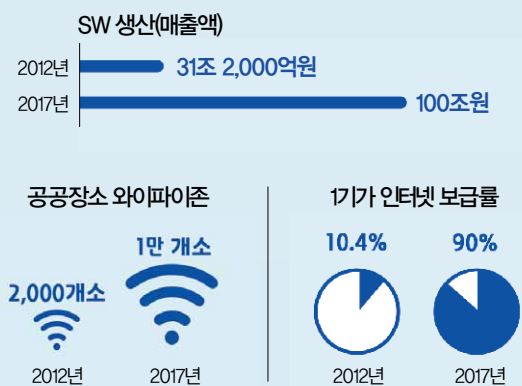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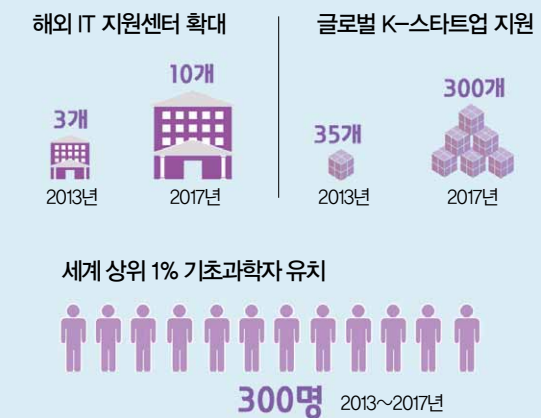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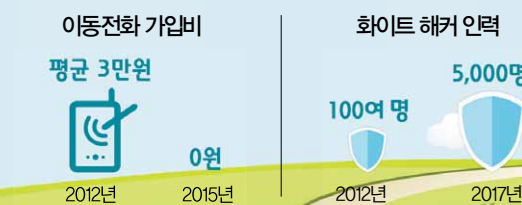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기술지주회사)을 확대한다. 공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운영해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뱅크'를 만든다.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의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도 조성한다.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랩(콘텐츠창작연구소) 설립을 지원한다. 한국 연구개발 사업의 중추가 되는 출연연구소를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출연연구소에 투자를 늘리고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연구소 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이 대우받는 사회도 만든다. 과학기술인 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82퍼센트의 과학기술인이 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IPTV를 결합하는 등 새로운 융합 서비스도 도입한다. 지상파 고화질 3차원 방송이 올해 12월 상용화된다.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고도화된다. 2017년까지 전국 90퍼센트 지역에 초당 1기가급 속도의 인터넷을 보급하고 약 1만 개소의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한다. 미래부는 현재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도 약속했다.

한국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도 앞당긴다. 해외 과학기술 혁신거점을 만들어 한국 과학기술 인력을 해외로 보내 'ICT 한류'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세계 상위 1퍼센트에 드는 과학자 3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 리더 3,000명 양산 계획도 밝혀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G

글·박상주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창업 도전 주저 마세요 씨앗 키울 토양 정부가 책임집니다"

창의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창의적 자산이 창조경제의 원동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주무부처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를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한국 경제모델을 바꾸는 것이 최문기 장관의 목표다.

Q 창조경제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이나 기존 산업들이 서로 융합해야 한다. 그 원천은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접목이다.

국민의 창의적 상상력이 그 시발점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원천과 시발점을 키우는 부처다. 창조경제의 성패가 미래부에 달려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으로부터 한국 창조경제의 성공 전략을 들었다.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진 기반이나 현실적 수준은 어떠하며 부족한 점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다양한 개인·기업·시민사회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과학자보다는 공무원이나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창업에 한번 실패하면 낙인효과로 패자부활도 어렵습니다. 미래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자산을 활용해 창업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승부를 겨루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또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나서는 환경도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부의 구체적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제조업 중심의 추격형(Fast-follower) 성장 전략을 토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저성장·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선진국 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부는 우선 국가 연구개발(R&D)과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기존 산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인재가 넘쳐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현할 것입니다."

ICT가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콘텐츠(Contents)-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기기(Device) 생태계로 대표되는 ICT는 그 자체로 국내 GDP의 8퍼센트, 전체 수출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산재된 지식과 정보의 개방·공유·재축적을 촉진해 창의력을 창의자산화하고 이를 다시 창업으로 연결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또한 ICT산업은 기존 산업에서 보이는 개별 기업 간 경쟁과 달리 벤처나 1인 창조기업에도 창업과 성장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ICT는 모든 산업의 '혁신의 원천'이며 '범용기술'입니다. 이를 융합하면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 중 하나가 바로 IC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ICT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완제품과 부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해 C-P-N-D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ICT를 타 산업과 융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ICT 기기(완제품)와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강점입니다. 아직까지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부품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ICT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ICT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ICT에 집중한다면 그 외 전통적인 산업 분야가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ICT와 전통산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융합하고 통섭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ICT가 전 산업에 '비타민'으로 작용해 기존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업과 ICT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Agriculture)에 ICT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비타민 A, 문화산업(Culture)에 활용하면 비타민 C 등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조선·섬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접목해 주력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스마트교육·스마트워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을 통해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미래부에서 바라보는 창조경제의 모습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부가 주력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ICT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단기 과제라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장기 과제입니다. 그 핵심은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선진국 따라 하기가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환경을 살펴보면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5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 자원이 사업화와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방송-통신과 콘텐츠의 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미래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콘텐츠 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9퍼센트의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유망한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첨단 방송통신 기술과 융합된 콘텐츠 분야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해 미래부에서도 1인 창작자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과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는 랩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국민이나 과학기술자, 기업이 도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국민 여러분은 각자 가지고 계신 작은 씨앗,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일은 정부가 책임집니다. 창업에 걸림돌이 될 자갈과 잡초 같은 장애 요인과 규제는 제거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분들도 창조경제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선도형 경제를 이끌어나갈 핵심·원천 기술을 적극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할 줄 모르는 창업가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십시오." G

글·박상주 기자

도전정신 + 창의적 인재교육 = 벤처왕국

생산적 군대 시스템과 정부 벤처펀드 합쳐 세계 최고 창업국가 건설

이스라엘은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 과학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생산적인 군대 시스템, 혁신적인 벤처 창업을 통해 '21세기형 선진국'의 전형을 이뤄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혁신은 인적자원에 희망을 걸고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한국정책방송(KTV)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창조경제, 세상을 변화시키다'라는 특집을 방송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그려 보기 위해서다.

투비아 이스라엘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창조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기 위해서 멀리 바라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같은 해다. 2,000년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모여들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척박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이자 지식경제 산업의 중심 국가를 건설했다. 대한민국 국토 5분의 1 정도의 협소한 땅, 자원이라고는 사해의 소금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과 제약을 오히려 생산적 요인과 자산으로 바꿔 놀라운 경제성장의 기적을 일궈냈다.

현재 인구 780만 명의 이스라엘은 800명당 1명이 창업을 하고 있다. 1인당 벤처펀드 규모 세계 1위이자 전 세계 벤처 캐피털의 35퍼센트가 투자되는 나라, 그리고 21세기 하이테크를 이끄는 선두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장점을 연구했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과학기술 개발이었다. 창의적인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며 기회를 잡아나갔다.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했다. 이 때문에 건국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도전의 길을 이야기할 때 '후츠파(Chutzpah)'라는 단어를 언급한다. 주제넘은, 당돌한, 놀라운 용기 등을 뜻하는 '후츠파'는 이스라엘 국민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유대인 가정교육의 힘

후츠파가 이스라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하면 된다'는 마음 자세가 이스라엘 국민의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았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도 일단 도전한 다음 생각한다. 특히 이스라엘 기업인들은 실패를 경험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후츠파 정신이 투철하다. 이들은 거침없는 도전을 통해 이스라엘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여기에 누구나 동등하다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스라엘 기업에서는 사장과 말단 신입사원의 발언권이 같다. 사장실에 직접 찾아가서 회사의 방향을 논하는 배짱 두둑한 직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세 가지 의견이 나오고, 네 가지의 결론이 도출된다는 말이 있다. 서열과 형식에 매이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내놓는 수평적 문화가 역발상과 창의적 사고로 이어지며 이스라엘 벤처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침없는 도전정신은 혁신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제도와 함께 위력을 더하고 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2퍼센트와 미국 아이비리그 졸업생의 30퍼센트를 차지한다.

유대인의 창의교육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곳에서 출발한다. 아들과 담소하는 유대인 교육은 질문에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이런 교육법은 부모에게도 상당한 인내와 끈기를 요구한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어디를 가나 4~5명이 그룹을 이루어 활동한다. 따라서 여럿이 하는 또래 놀이에 익숙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레 사회성이 길러진다. 유대인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는 어린이, 말하기를 겁내지 않는 어린이, 가르치기보다는 직접 깨닫게 하는 것을 표방한다.

유대인 특유의 질문 문화는 오랜 역사와 종교에서 비롯됐다. 오늘날 유대인 문화의 뿌리가 된 '탈무드 교육'의 핵심이 바로 '질문'이다. 질문과 답변, 일종의 토론서 형식으로 구성된 〈탈무드〉는 절대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대신에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절충하고 서로의 논리를 보완하며 전개한다.

한남동 유대교 회당의 랍비 리츠만은 "내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진리를 배워간다"며 유대인 교육을 설명했다.

한국에서 유대인 교육을 적용하고 있는 부천대학교 전성수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아무리 상대방이 교과서 같은 답을 해도 반박을 해야 토론이 진행된다"며 "저절로 남과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다"며 유대식 토론 교육을 설명했다.

성공 벤처가 또 다른 창업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

후츠파 정신으로 무장한 창의적인 인재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교하게 구성한 창조경제 시스템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젊은이들이 마음껏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이면에는 '창업하기 좋은 사회 기반'을 조성해놓은 이스라엘 정부의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벤처 왕국' '창업국가' 라는 수식어로 불리게 됐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나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창업할 수 있다. 창업 자금 유치부터 사무실 설립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1980년대부터 정부가 지원해온 창업 시스템은 곧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벤처 산업을 이끌기 시작했다.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한 긍정적인 사례로 꼽는 이유다.

이스라엘이 역동적인 창업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정부가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요즈마펀드'가 있다.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창의·독창·창업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다. 요즈마펀드는 이

한남동 유대교 회당의 미팅 모습. 이스라엘 문화의 뿌리인 탈무드 교육의 핵심은 질문이다(왼쪽 사진). 연구과제를 놓고 토의 중인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학생들.

스라엘 정부가 1993년 1억 달러를 조성한 벤처지원 펀드다. 이 중 8,000만 달러는 10개 민간 벤처캐피털에 자금을 대주는 요즈마펀드로, 2,000만 달러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요즈마벤처펀드로 사용했다. 정부의 수석과학관이 펀드 이사회에 참여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왔다.

마침내 벤처 생태계가 형성되자 변화가 나타났다. 펀드를 받아 성공한 젊은 기업인들이 주위 신규 벤처에 재투자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투자로 또 다른 기업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되며 운영자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났다. 운영 자금이 넉넉해진 결과 지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성공한 벤처가 다시 다른 벤처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의 투자 시스템이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주는 문화와 어우러져 이스라엘을 역동적인 창업국가로 이끌어준 것이다.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은 이스라엘에서는 불안한 안보 문제로 군복무가 의무사항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남자 3년, 여자 2년의 군복무를 한다.

이때 이스라엘 고등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진학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군부대를 갈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군대 내에서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군복무 기간은 기업과 사회에서 바라는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훈련의 장인 셈이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요나단 발카이 씨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부대를 나왔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라며 "군복무 기간이 단절과 정체가 아닌 개발과 성장, 좀 더 생산적인 시간이 돼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창업 성공인 80%가 이스라엘 엘리트 부대 출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입대를 간절히 희망하는 '탈피옷'이라는 엘리트 부대도 있다. '탈피옷'은 군대의 엘리트 기술인력 양성 부대다. 매년 이과 고교 졸업생 50명을 선발해 군사와 대학교육을 시킨 후 정보기술(IT) 등 첨단군사기술부대에서 6년간 장교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IT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첨단기술 개발 업무와 조직운영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제대 후 탈피옷 출신들은 대부분 IT벤처를 창업하고 있다. 또 군대에서 형성된 후배 인적자원들을 돕고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80퍼센트가 이스라엘 엘리트 부대 출신일 정도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창업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년 넘게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지원했다. 그 결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조기업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투비아 이스라엘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이 벤처 강국으로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했다"며 "한국도 멀리 바라보고 꾸준히 지원하며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G

글·조용탁 기자

창조경제 현장서 한국의 미래를 보다

KTV '창조경제, 세상을 변화시키다' 추동진 PD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가 말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창조경제'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임하며 가장 고심한 부분이다. 제작 방향에 대한 실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찾았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근간으로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이 말처럼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이다. 기존 산업에 정보기술(IT)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인구 780만의 작은 나라다. 나라가 만들어진 지도 65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황무지밖에 없던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이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며 50배의 경제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후츠파(Chutzpah) 정신'과 '융합'이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창업국가〉라는 책을 참고했다. 이 책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윤 차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윤 차관은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손발을 부지런하게 하는 것 외에 우리의 머리를 창조적으로 개조해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창조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존 산업 간의 융합과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세계는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오·의료·선박·LED 등이 정보기술(IT)과 융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첨단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앙포토

이스라엘 과학기술의 산실 와이즈만연구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을 들 수 있다. '페이스북'은 하버드대학교에 다니는 한 대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10억 명이 이용하고 있다. 미국·유럽에서만 일자리를 45만 개나 창출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에서 유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창조경제'다.

정부에서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어떻게 창업해야 좋을지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여러 정책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해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고, 여러 펀드를 조성해 자본적인 어려움을 가진 창업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될 때 한국에서도 창조경제가 한발 빨리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산업과 기술의 성공적 융합과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범국가적인 지원이 한데 잘 어우러져 '창조경제'가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G

글·추동진 PD

1974년생
1992년 지테코 설립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졸업
1999년 비욘드 시큐리티 설립
2011년 한국 진출

주기중 기자

이스라엘 벤처 '비욘드 시큐리티'
아비람 제닉 대표

"주제넘은, 당돌한, 놀라운 용기 당신은 가지셨나요"

아비람 제닉 비욘드 시큐리티 대표는 서울과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사업을 벌이는 지한파 이스라엘 기업인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기업군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출신의 벤처기업가 아비람 제닉은 1992년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열아홉 살 사업가가 창업한 벤처기업은 개인용컴퓨터(PC)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전문 개발업체였다.

"PC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게임이나 단어 찾기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감이 늘자 제닉 대표는 아예 사무실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옮겼고, 불과 3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기업을 매각했다. 10대에 창업해서 글로벌 기업이 인정하는 사업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 창조경제 시스템의 수혜자라고 소개했다. 기업 등록부터 자금 지원, 멘토링 서비스까지 그가 원할 때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제닉 대표가 창업에 걸린 시간은 반나절에 불과했다. 창업자금은 벤처투자회사와 가족이 지원했다. 벤처 창업 경험이 있는 친인척과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선배들, 정부 창업센터에서 사업 방향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심지어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을 내는 일도 사업증명서 한장만 미국에 팩스로 보내고 마무리됐다.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 제닉 대표의 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증해줬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1980년대부터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인구 78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한 정보통신(IT) 강국으로 올라서게 됐다.

제닉 대표는 도전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도 강조했다. "도전 문화를 이야기하면 꼭 언급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제넘은, 당돌한, 놀라운 용기 등의 의미가 있는 '후츠파(Chutzpah)'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정신을 일컫는 말이지요."

제닉 대표는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 학부인 테크니온공대 출신이다. 동창 상당수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성공을 향해 달리는 셈이다. 하지만 동창 중에는 창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도 여럿이다. 이들이 지방국도나 비포장도로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만의 꿈을 위해 도전하기 위해서다.

그도 자신의 꿈을 위해 1999년 IT 보안기업인 비욘드 시큐리티를 설립했다. 정부 기관과 기업을 위한 해킹 방지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다. 3명이 사무실 하나로 시작한 기업은 지금 세계 10여 개국에 진출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보안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벤처 창업에 성공한 이스라엘 출신 선배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과 인연을 시작했다. 3년 전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매월 2~3주는 한국에서 지낸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한국 벤처기업들을 지켜보게 됐다. 그는 한국에 창조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기 위해 두 가지 필요한 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하나는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자금이다.

"펀딩이 어렵습니다. 50억원 투자받는 일보다 5,000만원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벤처투자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공 가능성이 큰 소수 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5,000만원씩 1,000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할 일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벤처 창업자의 평균 창업 비용이 대부분 1,0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실패 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벤처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요합니다. 1,000만원으로 성공 못하는 기업인은 10억원을 줘도 못합니다. 초기에 가능성 있는 창업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도 초기 소액투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시스템이다. 가이드가 없기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시장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자금의 낭비가 발생한다. 먼저 진출해서 성공한 선배들이 적은 데다 교류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커다란 경쟁력"이라며 "경험을 살려 한국 벤처인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닉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스라엘 전문 투자 컨설팅 기업인 코이스라와 함께 한국의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벌이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를 비즈니스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기업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기회를 찾지 못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제닉 대표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미국 IT산업의 본산인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벌인 경험도 있고 미국 주요 IT기업이 주목하는 기술과 산업의 흐름에도 밝다. 이스라엘 출신 사업가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도 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 제닉 대표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한국 벤처기업을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대국입니다. 이스라엘에 없는 글로벌 대기업이 있고 동료와 함께 일하는 조직 문화도 강합니다. 여기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벤처 기업군이 더해지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의 나라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나스닥에 많은 기업을 상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G

글 · 조용탁 기자

페레츠 라비 테크니온대학 총장

"실패 딛고 도전 또 도전 박수 쳐줘야 창조경제 실현"

테크니온대학은 수많은 벤처 기업가를 배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명문대학이다. 이곳 학생들은 대기업 취업을 창업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페레츠 라비 총장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사회가 이러한 도전에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창조경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테크니온대학

페레츠 라비 테크니온대학 총장은 한국에도 후츠파 정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희 학생들에게 가장 돋보이는 점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을 바꾸겠다는 목표가 있지요."

페레츠 라비 테크니온대학 총장은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눈과 표정을 볼 때마다 세상을 향한 도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1924년 설립된 테크니온대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최고의 공과대학이다.

졸업생 60퍼센트가 창업을 하고 이스라엘 100대 기업 CEO의 절반이 이 대학 출신이다. 졸업생 4명 중 1명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의 임원 대부분도 이곳 출신이다.

이스라엘 창조경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다. 테크니온대학을 이끌고 있는 라비 총장에게 전자메일로 대학의 역할과 한국과의 교류, 그리고 창조경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테크니온은 수많은 기업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벤처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테크니온 출신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창업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생 대부분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키우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DNA에 있는 생각입니다. 대학도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창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온대학 졸업생들은 자발적으로 후배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기업 활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부 3학년생들은 반드시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과의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스로 기업을 일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한국에도 높은 기술을 자랑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상업화하는 일은 아직 진전이 더딘 편입니다. 테크니온은 기술의 상업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테크니온의 경우 상업화 과정을 돕는 T3라는 기술이전센터가 있습니다. 테크니온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설립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T3는 라이센싱(Licensing)·로열티·회사지분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올해(2012. 9 ~ 2013. 8)만 T3를 통해 약 2,6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예상입니다.

우리 대학은 T3와 같은 수익 모델을 꾸준히 찾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되면 20~30년 후에는 세계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전 수익과 관련하여 의료 부분에서 전자 및 기계공학 쪽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테크니온대학 자체적으로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약 1~2년 동안 5만 ~ 6만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온대학 벤처캐피털 기관은 테크니온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회사에 지금까지 2차례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테크니온대학 교수 42명이 한국과 교류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KAIST와 가장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KAIST는 테크니온대학과 유사한 학교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수준 높은 대학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BSF(Binational Science Foundation)와 같은 한국-이스라엘 양자 간 학술연구 펀드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만약 이런 펀드가 있다면 양국의 학술 교류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KAIST와는 매년 진행되는 학술포럼을 통해 교류하고 있으며 저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정부는 이스라엘의 경제 모델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창조경제로 설명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경제 시스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기업문화 형성이 바로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창조경제는 문화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장과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도전정신을 뜻하는 '후츠파(Chutzpa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지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후츠파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 기업정신을 장려하는 사회 문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많은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들이 성공보다는 실패를 맛봅니다. 이런 실패 속에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도전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화 없이는 창조경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는 교수와 학생의 수평관계, 자유롭게 질문하는 문화, 실패가 허용되는 문화가 필요한 듯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많은 한국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신 있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테크니온에는 노벨상을 받은 다니엘 셰흐트만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유사결정(quasicrystal)'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셰흐트만의 연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연구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셰흐트만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연구에 집중했고 결국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후츠파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G

글·조용탁 기자

4. 20~10. 20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콘크리트 숲속에 지쳤죠 남도의 정원으로 오세요

세계 23개국 83개 정원 중 '순천호수정원' 규모 면에서 압도

1 순천호수정원을 배경으로 보이는 거대한 게. 마치 〈걸리버 여행기〉 속으로 들어간 듯하다.
2 환경부가 만든 환경정원. 교도소와 소년원 수용자들이 참여해 정원이 갖는 치유의 의미를 살렸다.
3 지구동문 앞쪽의 거대한 문어 다리. 문어는 게와 이웃이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4월 20일 개장해 6개월 동안 관람객을 맞이한다. 에코지오 온실 앞 활짝 핀 꽃들이 관람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꽃길이다. 봄 날씨의 변덕스러움이 잦아들던 4월 17일, 차로 서울을 출발해 동순천IC를 벗어나 순천만 방향의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아가는 길은 온통 꽃길이었다. 정원박람회라니 당연하지 싶으면서도 반갑다. 뒤끝 길던 지난겨울 추위가 지겨운 탓일 게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순천시 풍덕동·오천동 일원, 순천만에 이르는 111만2,000평방미터의 면적 위에 마련돼 있다. 축구장 100개 크기다. 정원박람회장에 조성된 정원은 모두 83개. 전 세계 23개 나라가 참여했다.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세 계절에 걸쳐 문을 연다.

그 크기를 머릿속으로 가늠하며 박람회장에 다가가자 정원박람회장의 동쪽 문 '지구동문'이 보인다. 지구동문 앞에 있는 화초로 꾸민 '거대 모래시계'가 관람객들을 반긴다. 박람회장 안팎에서는 거대 달팽이·게·조개·문어 등이 눈길을 끈다.

정원박람회장을 동서로 나누고 있는 동천(東川)을 건너니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보이고, '빛의 서문'이 나온다. 지구동문과 마찬가지로 유·무인 매표소와 각종 안내판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 관광 안내소에는 개장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남 무안군에서 온 일행이 노인 대학생 100여 명의 단체관람 사전답사 차 이곳을 찾았다. 서문 관광안내소의 문화관광해설가 박상인(53·순천시 연향동)씨는 "정원박람회의 특성상 박람회장 내에서는 정해진 식당이 아니면 도시락을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1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해온 도시락은 쉼터에서 드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었다.

정원박람회장에는 동문·서문 양쪽 주차장에 8,600여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00여 석의 쉼터가 마련돼 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특히 주말에는 붐빌 것으로 예상하고 기차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순천역에서 박람회장 사이를 순환하는 5대의 버스를 운영 중이다. 번호는 200번,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 10분까지 운행한다. 1회 순환에 20분 정도 소요되니 주말에는 굳이 승용차로 박람회장을 찾지 않아도 될 듯하다.

폐컨테이너 미술관 안엔 알록달록 어린이들 꿈 가득

'빛의 서문'을 들어서는 길은 독특한 지면의 굴곡과 양옆에 늘어선 돌벽이 지나는 사람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유인하는 듯하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앞쪽에는 유유자적한 풍경의 순천만 WWT(Wildfowl and Wetland Trust)습지가 펼쳐진다. 잔잔한 호수, 야생 조류들이 햇볕 아래 졸고 있는 풍경에 잊고 있던 여유로움이 솟아난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와 습지 남쪽으로 배치된 수목원은 동천 건너편 주 박람회장과 비교할 때 담백한 분위기다. 이곳에는 남

1 정원박람회장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박람회장 이용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2 정원박람회장 앞 대로변의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3 중국 정원 인근 재활용 정원의 맥주캔으로 만든 화분.

쪽으로 약 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순천만으로 운행하는 소형경전철(PRT) 센터가 위치해 있다. 현재 PRT 대신(8월경 배치 예정) 순환버스가 운행 중이다.

정원박람회 기간 중 동서 행사장을 연결하는 것은 길이 175미터의 꿈의 다리다. 폐컨테이너를 활용해 만든 '다리 미술관'으로 내부에는 어린이 그림이 전시돼 있다. 알록달록 글씨가 그려진 꿈의 다리를 보니 다리 위로 남쪽을 향해 앉은 흰색 소년의 상(像)이 보인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동쪽의 주 박람회장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10개국의 세계 정원, 61개 참여 정원 등이 화려하게 조성돼 있다. 특히 유명 정원 디자이너 찰스 젱스가 순천의 지형을 형상화한 순천호수정원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다.

세계 정원에서는 잠시 여행 기분을 맛볼 수 있다. 빌라 분위기의 이탈리아 정원, 절도가 느껴지는 독일 정원, 거대한 풍차의 네덜란드 정원에서 유럽을 찍고, 사원 정원에서 잠시 동남아를 맛본 뒤 안데스아마존 정원에서는 중남미까지 섭렵할 수 있다.

자연자원 재활용하고 습지센터엔 지열·태양광 활용

폐컨테이너로 만든 꿈의 다리에서 보듯 정원박람회는 자연 자원을 재활용한 '친환경 박람회'이기도 하다.

정원박람회장 주변 가림막과 박람회장 내 차양막은 갈대를 엮어 만들었다. 바위 정원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나온 바위들로 조성했다. 간벌(솎아베기) 나무들도 박람회장에 옮겨와 산책로와 정원에 심었다. 정원박람회장의 자연 영양제 퇴비는 친환경 방법으로 만들었다. 나무 주변에는 땅속에 박는 '말뚝형 지주목'을 고안해 활용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가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모두 지열과 태양광을 활용한다.

'생태놀이터'란 주제로 문화예술 공연도 풍성하게 펼쳐진다. 정원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장과 순천시내 일원, 낙안읍성에서 하루 평균 55회, 총1만166회의 문화예술 공연, 체험, 전시 행사가 열린다. 특히 정원박람회장의 동천갯벌공연장에서는 주말마다 자연친화 뮤지컬 '천년의 정원'이 공연된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문운기 홍보부장은 "국내 관람객 4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 유치를 위한 교통과 숙박 대책도 체계적으로 세웠다"며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입장권 예매 할인 마지막 날인 4월 12일까지 예매된 입장권은 103만여 장으로 목표치인 80만 장을 넘어섰다.

참여정원 중 한 곳인 SK의 정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기분이다.

정원박람회장 인근에는 또 다른 볼거리들이 적지 않다. 순천만을 포함해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드라마촬영장, 야생차체험관, 고인돌공원, 순천왜성, 주암호·상사호, 와온·화포해변의 '순천 10경(景)'이 대표적이다.

여수시는 4월 20일 정원박람회 개장에 맞춰 오동도 앞에서 정원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문의 : 여수시 관광과 061-690-2727).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춰 빅오(Big-O)·스카이타워·디지털갤러리·아쿠아리움 등을 다시 연다고 밝혔다. 넉넉한 인심, 걸게 차려 내오는 남도 밥상은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돈다. 순천만에서 나오는 짱뚱어탕은 순천 명물이다.

정원박람회장을 나와 인근 식당을 찾으니 공기밥, 짱뚱어탕에 곁들인 반찬이 후식인 떡까지 포함해 11가지다. 배추겉절이·배추김치·백김치·묵은지를 포함해 곰삭은 젓갈양념장을 곁들인 배추 속잎 등 정겨운 반찬이 가득하고, 튀긴 게를 물엿과 함께 조린 게조림은 달달하면서 고소하다. 말린 장어 간장무침·꼬막무침·취나물무침까지, 어느 것에 젓가락이 가야 할지 모를 정도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4월 19일 개막식과 전야제, 4월 20일 개장식을 갖고 6개월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4월에 시작된 순천의 핑크빛 벚꽃 엔딩, 10월의 화려한 낙엽 엔딩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장 조충훈 순천시장
"아름다운 순천의 새로운 100년 미래가 열립니다"

"이번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700년 역사를 가진 순천은 지금껏 한반도 최남단 중소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원박람회가 순천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희망했다.

정원박람회의 공식 엠블럼 ECOGEO의 의미는

"생태계를 뜻하는 '에코시스템(Ecosystem)'과 지구를 뜻하는 '지오(Geo)'가 결합되어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박람회, 미래를 생각하는 박람회'를 의미합니다."

왜 정원박람회인가요

"콘크리트 도시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아토피가 급증하고 원인 모를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원은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휴식과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자연과 생태, 그리고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세계 최초의 특별한 정원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원박람회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는

"정원박람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목이 울창해지고 가치가 상승하는 미래형 박람회입니다. 이번 정원박람회 개최로 1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7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내고 1만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허브가 될 것입니다. 조경·화훼·뷰티산업 등 신성장동력이 정원박람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힐링 연관 산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오셨는지요

"28만 순천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저와 순천시 공무원들이 태풍 볼라벤과 같은 자연재해를 이겨내며 정원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수목을 기증하는 헌수운동에 참여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부금을 내주셨으며, 잡풀 매는 봉사활동에까지 아낌없이 나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2부제 등 정원박람회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 초대 말씀을 하신다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히 몇 개월간 국제행사 하나 치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만과 박람회장, 그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을 따라 생태 숲을 만들고, 거기에 문화를 덧붙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가 새롭게 탄생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여행 계획 1순위로 정하시고, 꼭 오셔서 생태와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100배 즐기기

정원박람회 입장권 지참 시 혜택

혜택	관광지 또는 사찰	지역	전화번호
무료입장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전남 순천	061-749-4007
	낙안읍성		061-749-3837
	드라마촬영장		061-749-4003
	순천자연휴양림		061-749-4069
	뿌리깊은나무박물관		061-749-8855
입장료 50% 할인	선암사		061-754-5247
	송광사		061-755-0107
	화엄사	전남 구례	061-782-7600
	백양사	전남 장성	061-392-7502
	대흥사	전남 해남	061-534-5502
	선운사	전북 고창	063-561-1422
	금산사	전북 김제	063-548-4441

*입장료 이외 시설물 이용료, 체험비는 혜택 없음.

전국 주요 역 여행센터
☎ 서울역(02-3149-3333), 용산역(02-3780-5555)
☎ 영등포역(02-2639-3638), 대전역(042-253-7960)
☎ 천안아산역(041-549-8788), 광주역(062-525-4835)
☎ 익산역(063-855-7715), 순천역(061-749-2290)

문의 ☎ 지역번호 없이 1566-3655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요일 휴무)
온라인 숙박 예약 www.hotelnjoy.com/expo2013

입장권 종류

구분	성인(만 19~64세)	청소년(만 13~18세)	어린이(만 4~12세)
보통권	1만6,000원	1만2,000원	8,000원
단체권	1만3,000원	1만원	6,000원
야간권	8,000원	6,000원	4,000원
2일권	2만4,000원	1만8,000원	1만2,000원
시민권	6만원	5만원	4만원
시민권할인	3만원	2만5,000원	2만원
보통권할인	8,000원	3,000원	2,000원

무료 : 국가유공자(유족), 1~3급 장애인, 만 4세 미만(부모 동반 시)

특별할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군인, 4~6급 장애인, 장기기증희망신청자 등 50퍼센트 할인

하나SK에코지오카드 소지자, 하나은행 녹색적금&광주은행 꾸루꾸미적금 가입자 4인 가족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 인터파크 1544-2881, 2013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콜센터 1577-2013
☎ 조직위 입장권관리팀 061-749-2765, 2766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 www.2013expo.or.kr
인터파크 홈페이지 ticket.interpark.com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6개월에 걸쳐 열리는 관계로 기간에 따라 폐장 시간(평소 7시, 6~8월 9시)이 다르다. 또한 정원박람회 입장권이 있으면 무료입장을 하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폐장 시간(해질 때까지, 천문대 오후 10시)과도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용해야 한다.

입장권 구입은 이렇게

정원박람회 티켓의 연령 구분은 개막일 기준(4월 20일)으로 적용한다. 만 4세 미만(2009년 4월 20일 이후 출생) 어린이는 가족의 보호하에 무료입장이 가능하지만 어린이 단체관람을 할 경우는 유료 입장이다.

단체권은 30매 이상 구매하되 개별 입장이 가능하다. 2일권은 2일 연속 입장만 가능하고 기간을 띄어 입장할 수는 없다.

시민권은 순천시민뿐 아니라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본인에 한하여 전 기간 입장 가능하다. 시민권은 입장권에 사진이 인쇄되기 때문에 예매 시 실제 입장권 사용자의 사진과 이름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무료입장 대상자는 입장 시 관련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8월 30일~9월 15일) 입장권 소지자도 연계 할인혜택이 주어져 보통권 기준으로 입장료 50퍼센트가 할인된다.

입장권 구매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전국의 하나은행, 광주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단, 야간권과 특별할인권은 박람회 기간 현장 매표소에서만 살 수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낙안읍성·드라마촬영장·순천자연휴양림·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등 순천시내 5개 관광지 입장이 무료(관광지별 1회)다. 단, 시민권은 발급일로부터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입장이 가능하다.

박람회 입장권 있으면 할인

순천시내와 인근의 7개 사찰도 정원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 50퍼센트 입장료를 할인해준다. 사찰별 1회에 한하며 시민권 소지자는 할인 기간 내내 5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원박람회 기간 중 순천시내 음식점 33개 업체가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 정상요금(주류와 음료수 값 제외)의 10퍼센트를 할인해준다. 여수·목포·광양시와 구례·고흥·곡성군 등 도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 188개소도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들에게 입장권 요금을 최대 50퍼센트까지 할인해준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음식점·관광업소·숙박업소 명단은 정원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관람안내→입장권 안내→입장권 구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박은 이렇게

정원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순천·여수·고흥 등 인근 지역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 있다. 숙박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엔조이'와 연계되어 가나다의 이름순뿐 아니라 인기도순·가격순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코레일은 정원박람회 기간 중 KTX 특별임시열차를 운행한다.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정원박람회 기간에 전라선 KTX는 1일 4회 추가로 운행하고 2개 열차는(상행 1회, 하행 1회) 서울역에 임시 정차한다. 또 KTX 정기열차를 2회 신설하고 막차 시간도 연장 운행한다.

코레일 KTX 특별임시열차 운행

하행 열차는 기존 막차 출발 시간(용산역 오후 7시 20분 출발)보다 1시간 45분 연장, 용산역에서 오후 9시 5분 출발(여수엑스포역 0시 27분 도착)한다. 상행 열차는 여수엑스포역에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 용산역에 오전 10시 54분 도착한다. 이에 따라 전라선 KTX 운행은 1일 12회에서 6회가 늘어 모두 18회 운행된다.

코레일은 3월 20일부터 전국 주요 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정원박람회 입장권과 열차승차권을 함께 사면 열차승차권을 30퍼센트 할인해주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뽀로로야 노~올자 디보는 어디 갔지? 아빠! 찾아보세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는 23개국이 참가해 83개의 특색 있는 정원을 연출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특히 어린이들이 놀이와 교육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생태체험학습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박경아 기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사진 1〉

정원박람회장 서문 입구에 자리 잡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에 사는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주제관이다. 건물 외부의 야생동물원에서는 수달·거북·오소리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센터 안에는 3차원 입체영상관도 있어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하다. 하늘정원도 놓치지 말자. 센터 옥상의 하늘정원에 올라가면 수목원과 습지가 한눈에 펼쳐진다.

2 박경아 기자

어린이놀이정원 〈사진 2〉

'뽀로로' '디보' '앵그리버드' '토마스와 친구들'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계정원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정원에서는 토피어리 뽀로로와 디보, 꽃으로 장식한 토마스 기차가 박람회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반긴다. 범퍼카, 미니열차 탑승 시설과 포토 존도 마련되어 있다. 거대한 앵그리버드 머리를 고무줄에 얹은 듯한 대형 새총은 어린이들이 즐거워 할 만하다.

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순천호수정원 〈사진 3〉

박람회장 동문으로 들어서면 완만하게 솟은 푸른 언덕이 보인다. 순천호수정원이다. 잔디가 곱게 입혀진 언덕 아래로 호수가 펼쳐져 있고 다리가 가로지른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젱스가 순천에 머물며 디자인한 이 정원은 순천 지형을 본떠 만들었으며, 세계정원 구역의 메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호수 중앙의 봉화언덕은 순천시내 봉화산을, 다리는 순천시를 가로지르는 동천을 의미한다. 푸른 언덕 위에서 넓게 펼쳐진 박람회장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꿈의 다리 〈사진 4〉

순천의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동천으로 인해 분리된 주 박람회장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수목원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의 꿈이 전시되는 미술관이다. 컨테이너 30개를 활용한 꿈의 다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다리 미술관이다. 2010년 상해엑스포 한국관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설치예술가 강익중씨가 디자인했다. 오색 글자로 장식해놓아 알록달록 색동옷을 입은 듯한 꿈의 다리 내부에는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희망을 담은 그림 16만 점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정원 〈사진 5〉

정원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영화에서 본 정원의 풍경 속을 걸어보고 호젓한 벤치에 앉아 사색의 여행을 떠나도 좋다. 프랑스 정원은 엄격한 형식미를 중요시하는 고유의 특징을 보여준다. 중국 정원은 거대한 연못에 정자를 배치하고 석조 장식물과 수목을 조화롭게 꾸몄다. 빌라 정원같이 잘 다듬어진 이탈리아 정원, 가지런히 심은 교목과 수경시설을 갖춘 스페인 정원은 유럽 여행이라도 온 듯 호젓하고 이국적이다.

갯지렁이 다니는 길 〈사진 6〉

정원박람회장에서 유일하게 '정원'이란 이름이 붙지 않은 정원이다. 정원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인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2년 연속 입상한 디자이너 황지해씨의 작품이다. 갯지렁이가 다니는 갯벌 위의 길을 본떠 입체적으로 드로잉한 것처럼 표현했으며 갤러리·도서관·쥐구멍카페 등 재미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세계정원 구역에서 만날 수 있다.

한방체험관

관람객을 위한 건강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으로 세계정원 구역에 있다. 전통 한약방을 컨셉트로 하여 치료에 쓰인 다양한 약재와 한의약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상체질 진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약용식물원에서 만난 식물들이 한의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한방 명상관, 발 마사지실 등은 쉬었다 가기 좋다. 평일·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야간 개장일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G

글·박경아 기자

4 박경아 기자

5 박경아 기자

6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연합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창작 프로그램 '팔로우'가 진행될 광주 동구에 위치한 아시아문화마루.

시민들과 머리 맞대고 '창작 한마당'

광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예술가·시민 창작 프로그램 '팔로우' 진행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7개 팀의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무미건조한 공간을 창작 에너지가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일반 시민들도 예술가로 참여할 수 있다.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이 기대된다.

전남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2010년 광주비엔날레기념전에 초대되는 등 다양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설박(29) 작가는 올해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혼자만의 작업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들과 공동작업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전통 필법과 콜라주 등 현대적 조형감각을 혼용해 수묵화를 그리는 그는 작업의 특성상 이제껏 혼자 작업할 때가 많았다. 개인작업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낼 때가 많았지만 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 다양한 사람과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동작업의 장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제가 만든 작품들로 전시회를 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재능을 기부한다면 더 보람 있잖아요. 함께 창작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때마침 공동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기획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창작 프로그램 '팔로우'를 통해서다.

청년예술가 7개 팀 공개 모집으로 선정

이번 행사는 청년예술가들에게 시민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7팀의 청년예술가들을 선발했고, 설박 작가는 그중 한 명으로 참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4~5월 두 달간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진행되며 6월부터는 한 달 동안 전시회를 개최한다.

'팔로우'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7팀의 예술가에 시민을 더한 '8'과 그들을 알린다는 의미의 'know'를 합해 만든 이름이다. 시민들이 예술가를 따라 창작한다는 의미에서 'follow(따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일 청년예술가들의 작업은 설치미술·손글씨·한국화 등 가지각색이다. 고무신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 작업을 꾸준히 해온 백상옥 작가는 '고무신–시민들의 영웅 만들기'를 진행한다.

다양한 영웅들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고무신 안에 넣는 작업이다. 김경란 작가는 '업사이클아트'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흔히 버려지는 과자 봉지로 꽃을 만드는 작업을 펼친다.

설박 작가는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시민들과 함께 엽서를 만들고 이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6명의 캘리그래피 작가들로 구성된 '육감각'은 세 차례에 걸쳐 캘리그래피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 시간을 통해 시민들은 캘리그래피의 기본을 이해하고 나만의 손글씨로 에코백과 나비부채 등을 만들 수 있다. 캘리그래피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칼로스'와 '글쓰기'를 뜻하는 그리스어 '그라페'를 합성한 단어다. 아름다운 서체를 고안해 글씨를 쓰는 예술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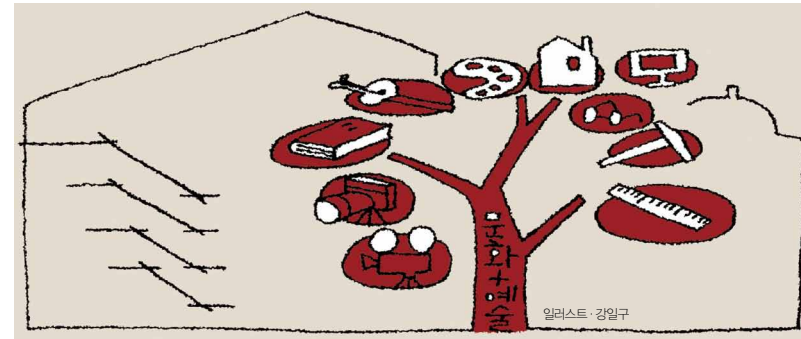
시민 참가자는 공식 카페서 공개 모집

권승찬 작가는 '음식'을 주제로 매주 설치미디어아트 작업을 선보인다. 권 작가는 시민들과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 결과물을 설치미술로 완성할 계획이다.

이현옥 사진작가는 시민들과 함께 광주의 소소한 역사를 담고 있는 거리로 출사를 나선다. 미디어아트그룹 CBN은 작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작품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예술가들에게 작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서 의의가 크다. 과거에 비해 예술가들의 수가 늘고 있는 데 반해 이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창작 공간은 부족한 편이다. 설박 작가는 "청년예술가들이 즐겁게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러스트 · 강일구

아시아문화마루는 문체부가 진행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세워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홍보관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문화마루 내 3곳의 전시 공간에서 진행된다. 1·2층의 실내전시관에서는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전시가, 문화마루 옥외 '아트야드'에서는 벽면을 활용한 설치미술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이번 행사에 참여할 시민 참가자를 4월 15일부터 아시아문화마루 공식 카페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있다. 세부 일정은 원하는 작가의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하고 모집 마감 뒤 해당 작가와 조율할 수 있다. 문체부 문화도시개발과 장일준 실무관은 "이번 행사가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

글·백승아 기자

'팔로우' 프로그램

작가	주제	요일
권승찬(설치미디어아트)	食 2.69	월·화
김경란(설치미술)	업사이클아트 (과자봉지로 꽃 만들기)	수
백상옥(설치미술)	고무신 together (시민들의 영웅 만들기)	토
설박(한국화)	콜라주 엽서 제작	금
육감각(캘리그래피)	나만의 손글씨로 에코백&나비부채 만들기	5월 17일, 6월 6일
이현옥(사진)	광주의 오래된 흔적을 찾아 거리로	토

'팔로우' 참가문의 (세부 일정은 모집 마감 뒤 해당 작가와 조율)
아시아문화마루 카페 http://cafe.naver.com/asiaculturemaroo
문의 ☎ 062–236–0481 전자메일 creative@korea.kr

"이별한다면 이들처럼 서로 행복 빌어줘야죠"

중앙포토

노덕(33) 감독은 서울예대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지구를 지켜라〉 스크립터로 영화계에 입문한 이후 〈마스크 속, 은밀한 자부심〉이라는 단편을 통해 연출 경력을 쌓았다.

〈연애의 온도〉의 반응이 뜨겁다. 4월 14일 17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해 2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작품이 신예 여성 감독의 데뷔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행보다. 비수기로 분류되는 4월의 극장가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 작품의 매력은 무엇일까? 노덕 감독을 만나 〈연애의 온도〉에 대해 물었다.

동희(이민기)와 영(김민희) 커플은 연애 3년 만에 헤어졌다. 이별에 대처하는 두 사람의 반응은 흡사하다. 동희는 '해방이다'를 외치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결국 술에 취해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며 추태를 부린다. 영은 '왜 슬퍼요?'라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는 대성통곡을 한다. 그리고 카메라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두 사람을 '인터뷰'한다.

〈연애의 온도〉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애초 '헤어지다, 그와 그녀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영화는 주인공을 찍는 다큐멘터리를 영화 안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드라마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런 기발한 구성을 선보인 노덕(33) 감독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실 연애의 세밀한 모습을 포착해냈다.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한 이 영화의 화법 자체를 낯설어하기도 한다. 쉬운 영화라고 생각하고 극장에 왔는데 기대했던 분위기가 아니니까. 아니면 굳이 영화에서 보고 싶지 않은 연애의 이면을 보여줬기 때문일까? 연애의 치부를 드러내니 불편했을 수도 있다."

중앙포토

김민희(왼쪽)와 이민기의 사실적인 감정 연기는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었다.

노 감독의 말처럼 〈연애의 온도〉는 연애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보통의 로맨틱 코미디가 남녀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면 〈연애의 온도〉는 연인이 헤어진 후의 상황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기존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관습에 반기를 든 것이다.

특히 사내 연애를 하던 동희와 영은 헤어진 후에도 서로에게 억하심정이 남아 회식 자리에서 욕설을 퍼붓고, 연애할 때 주고받은 선물을 작살내서 돌려주는 복수를 하거나 상대방의 SNS에 침투해 사생활까지 감시한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닌 너절하고 치졸한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 감독은 "이 영화는 연애의 치부를 드러내고자 기획한 작품이다. 시나리오에서는 표현이 더 심했는데 더 깊게 못 들어간 게 아쉽다"고 말했다.

"지질한 복수의 감정은 일종의 이별 세리머니"

그렇다고 〈연애의 온도〉가 다큐멘터리처럼 딱딱한 장르는 아니다.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미덕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이 영화는 대중영화이기에 멜로 장르의 미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이민기와 김민희의 이미지를 살리는 게 중요했는데, 장르의 미덕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노력한 부분이다"며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특정 사건보다는 인물의 감정이 중요하다. 관객이 인물에 애정을 느껴야 하니 최대한 예쁘게 보였으면 싶었다."

두 주연 배우의 사실적인 연기가 드라마를 풍성하게 만든다면, 순정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두 사람의 외모는 감정 몰입을 유도한다.

사랑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엿보인다. 이별한 연인의 재회에 대해 "줬던 사랑이 아까워서 다시 돌려받으려고 만나는 걸까?"라는 동희의 대사에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관념적인 접근이 느껴진다.

극 중에 등장하는 롤러코스터는 일종의 이별 세리머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그들이 이별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노 감독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은 지난한 사랑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별을 한다면 이들처럼 하고 싶다. 마지막에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준다."

노 감독은 "이 영화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한다"며 "영이 예전에는 가족에게조차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혼자 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라고 카메라를 보며 웃는 사람이 된 거다. 영은 이 연애를 통해 솔직해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입문 10년 만에 데뷔… "영화는 나의 소통도구"

그는 "영에게 있어 이별의 충격은 두번째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둘 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니까"라고 덧붙였다. 연애에 최선을 다한 두 사람이 이별을 통해 성숙해지는, 일종의 성장통을 겪은 셈이다.

노 감독은 2003년 〈지구를 지켜라〉 스크립터로 영화계에 입문한 지 10년 만에 데뷔작을 내놓았다.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과 나는 열 살 차이인데, 그때 나도 10년 뒤에는 영화를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정확히 10년 만에 영화를 개봉시켰다. 기쁘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는 그를 묶어두지 못했다.

"사람마다 각자 고유한 자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단지 예술가뿐 아니라 직장인이라도 해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가 펜이고 붓이라면 나에게는 영화인 것 같다. 이건 일종의 자존감 문제인 것 같다."

데뷔를 위해 10년의 시간을 버티고 견딘 노 감독이 선사할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는 이유다. 그가 선보일 다음 작품은 어떤 이야기일까? 그의 말을 빌리면 "한 언론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진실과 거짓에 관한 영화다. 사람은 저마다 추구하는 진실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담아낼 예정이라고 한다. G

글·지용진(매거진 M 기자)

강릉 바우길

길섶 봄이 재잘거린다, 하지만 바다는 말이 없다

숲과 바다, 산길이 아기자기, 둥글둥글하게 어우러진 강릉 바우길. 강원도의 땅과 사람을 닮아 정이 깊고 친근한 강릉 바우길은 대관령부터 동해안까지 강릉 전 지역을 어울러 구비구비 이어져 있다. 그날의 기분 따라, 체력 여하에 따라, 혹은 취향에 따라 산길부터 바닷길, 마을 길까지 골라 걷는 재미도 있다. 각각의 길마다 마련해놓은 색다른 느낌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오감이 깨이고 마음도 열린다.

바우길 중 바다호숫길은 안목에서부터 사천항까지 푸른 동해를 곁에 끼고 걷는 길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쥐고 있던 것들을 그만 내려놓고 싶어 여행길에 나서기도 한다. 생각이 필요해 걷기도 하지만 생각을 끊기 위해 걷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걷는 길이란 사실 어디든 시작이면서 또 끝이다. 시작과 끝이 따로 없는 길, 꼭 새해 첫날 0시가 시작점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걷기 길이든 인생길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강릉 바우길은 내륙과 해안을 오가며 16개의 코스를 가지고 있으니 걷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다. 오늘은 어느 코스를 걸을까. 강릉 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동해의 푸른 물과 경포대를 지나치고 가기는 아쉬운 일. 해송 숲과 경포대, 바닷길을 한번에 걸을 수 있는 5구간을 택한다. 더구나 이 길에는 강릉 커피거리가 있어 길을 걷다 마시는 커피 한잔의 매력까지 흠뻑 느껴볼 수 있다.

해변과 경포호 휘도는 5구간 16㎞ 하룻길로 넉넉

바다호숫길이라 이름 붙은 바우길 5구간은 강릉항에서 시작해 안목해변과 송정해변의 솔숲, 커피거리를 거쳐 경포호를 한 바퀴 휘돌아 걸은 후 경포해변·순포해변을 지나 사천항까지 가는 길이다. 약 16킬로미터로 하루 걷기에 좋은 코스인 데다 중간에 놓인 경포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바다와 솔숲이 펼쳐지는 해송숲을 겸한 바닷길이다. 구간의 양 끝점인 사천항이나 강릉항 어느 방향에서 시작해도 좋지만 강릉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한다면 강릉항이 보다 가깝다.

길에 들어서면 겨울을 지내고 조금은 잠잠해진 봄 바다를 가장 먼저 만난다. 봄 바다는 움츠렸던 몸을 깨우려는 듯 그 활기찬 푸름으로 객을 맞이한다. 객은 별다른 준비도 없이 문득 그 바다의 주눅 들지 않는 푸름과 마주하고는 뭔지 모를 부끄러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 색채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변주하는 바다의 재능이 새삼 놀라운 순간이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 없이 문득문득 바다를 찾는다. 그 푸름과 넓음을 마주하기 위해서.

바다를 옆에 끼고 걷는다. 길이란 다양한 재미를 숨기고 있다. 길 가다 만나는 사람, 길 가다 먹는 주전부리, 길 가다 맡는 꽃향기, 풀 냄새, 거름 냄새까지도 일상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감흥을 준다. 길 가다 올려다본 하늘은 매일 보던 그 하늘이 아니고 저 별과 달도 집에서 보던 것들과 다르다. 숨은그림찾기 놀이를 하듯 낯선 길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이 새롭다. 더구나 봄길이

라면 만물의 싱그러움에 대해 절로 감탄하게 된다.

해송 숲과 바다가 조화롭게 이어진 5구간은 어울리며 걷기도, 혼자 걷기도 썩 괜찮은 길이다. 내내 평지를 걷는 길이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산길이나 숲길이 부담스러운 사람이나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연령, 혹은 어린아이에게도 부담 없다. 길 폭이 넓어 가족이나 친구와 못다 한 이야기 나누며 손잡고 걸어도 좋고 홀로 바다를 곁하며 무념무상 걷기도 좋다. 걷다 보면 어느새 파도 소리가 마음으로 흘러든다.

솔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커피향

오르지 않고 내리지도 않고 다만 두 다리를 연거푸 같은 힘으로 움직여 쉬엄쉬엄 편하게 걷다 보면 걷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풍경에 동화된다. 어쩌면 철썩대는 동해의 푸른 바다는 무심코 함께 떠나왔던 그 시절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른다. 두 발이 살아 있음을 느끼는 걸음걸음. 한동안 자판을 두들기며 잃어버렸던 손가락의 아날로그 기억이 손 편지를 쓸 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몸은 자동차를 벗어나 뚜벅이의 기억을 천천히 끄집어낸다.

비가 오면 숲의 색은 더 선명해진다. 더불어 먼지에 덮여 있던 듯 뿌옇던 머릿속도 차츰 선명해온다. 사물의 짙은 빛깔이 습기 먹은 공기처럼 진하다. 바라보는 내 눈도 더불어 깊어진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또렷해진다. 평지이면서도 소나무로 둘러싸인 이 길은 부슬부슬 잔비가 내리는 날에도 추천하고픈 길이다. 비 오는 숲은 맑은 날의 숲과는 또 다른 운치를 자아내곤 한다. 옅게 안개라도 낀다면 그 길은 눈에는 뿌옇겠지만 외려 나와 더 절친하게 만나는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피톤치드를 아낌없이 뿜어내는 솔숲의 청량감은 산길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가슴 뿌듯하게 스며든다. 아낌없이 내주는 숲에서 그야말로 아낌없이 마실 수 있는, 막힌 코가 뻥 뚫리는 시원한 공기를 벗하며 가능하면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볼 일이다.

그 곁에 커피 한잔의 여유까지 찾아든다. 커피 향과 바다 향이 섞여 알 수 없는 묘한 향기를 뿜어낸다. 그 향은 유년의 기억 같기도 하고 다가올 시간의 예고 같기도 하다. 인간의 오감 중 가장 예민한 것이 코라고 했던가. 때로는 어떤 향기만으로도 사람들은 추억에 젖거나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 향기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감상을 싣고 있는 게 분명하다.

커피 향으로 그리고 바다 향, 솔 향으로도 충분히 향기테라피가 된다. 나를 얽어매던 스트레스가 슬며시 걷히고 마음은 잔잔한 저 바다의 모습처럼 평안의 길로 접어든다. 커피가 주는 마력이야 익히 알고 있었건만 그 커피가 바다를 벗하니 자연과의 교감은 배가 된다. 커피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에도 사람의 오감이 하나로 열릴 수 있다. 입과 코와 눈이 커피를 마시고 귀와 손은 바닷바람, 솔바람을 맞는다.

강릉 바우길 경포호 둘레를 벚꽃이 덮었다. 벚꽃을 즐기는 연인들의 모습이 사랑스럽다(위쪽) 솔숲의 청량감이 가슴 깊이 스며든다.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에 걷는 운치가 다르다.

벚꽃 만발한 길가에는 연인들 사랑이 꽃보다 만개

해송 숲을 걷다 보면 시나브로 경포호에 접어든다. 경포호는 바다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심상을 자아낸다. 갇혀 있는 물이지만 원한다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친근하다. 경포호를 한 바퀴 돈다. 길가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연인들의 사랑은 꽃보다 더 만개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은 분명 거짓이 아니다. 경포호 한 바퀴는 자전거로 도는 것도 좋다.

집과 직장을 오가던 길 같았으면 자동차로 단숨에 가로질러 버렸을 거리인데 새삼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살피느라 함흥차사로 걷는다. 목적 있는 걸음이 아니니 이런들 저런들 상관없다.

적당히 출출할 때 인심 좋은 곳에서, 곧잘 말 통하는 길동무와 술 한잔에 주전부리를 먹는 재미 역시 목마르도록 걸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걷기에 보태어지는 심심한 재미. 때로는 길동무와 술 한잔 하는 재미에 걷기가 보태어진 것 같을 때도 있다.

경포호에서 살짝 방향을 틀어 3킬로미터 근방의 반가한정식 집으로 간다. 거나하게 한 상 잘 차려진 시골밥상을 부러 찾아가는 까닭은 도시의 인스턴트 생활에 지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시골집이 못내 그리워서이기도 하다. 그렇게 찾아 들어간 시골밥상에서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손맛과 정을 음식보다 더 배부르게 담아온다.

함께 밥 숟가락을 뜰 길동무가 있었기에 거나한 상차림과 달큰한 술 한잔을 마냥 즐겨볼 수 있다. 혼자 걷는 길의 고즈넉함도 좋지만 이럴 땐 함께 걷는 길의 유쾌함도 그에 못지않음이 새삼스럽다.

여행이란 하릴없는 시간에도 집에서 편하게 누워 있지만은 않겠다는 작은 의지. 정말이지 그 '불필요한 체력소모'를 위해서 우리는 늘 어딘가로 떠나곤 한다.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삶은 전혀 어그러지지 않지만 여행이라는 사치성 항목에 우리는 삶에 꼭 필요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는 한다. 삶이 의미 없고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외려 여행은 더 절실해져만 간다.

아름다움을 좇아가는 것은 사람의 본능.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동경을 품는 것도 사람의 자연스런 마음이다. 시골에서는 도시의 빌딩숲을 보러 여행을 떠나고 도시에서는 바닷바람, 솔 향기가 그리워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그런 목마른 사슴, 아니 사람들의 목을 축인다. 다시 갈증이 나기 전까지 그런대로 진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길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그 길 위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걷기는 없을 테다. G

글과 사진·이송이(여행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사천항을 시작점으로 할 때 영동고속도로 끝까지 와서 동해고속도로로 갈아탄다. 북강릉톨게이트로 나와 우회전하면 7번 국도와 만난다. 7번 국도를 타고 1킬로미터 정도 더 와서 우측의 사천항 방향 지하도를 통과하면 사천천변길, 여기서 3킬로미터만 더 가면 사천항이다. **남항진 및 강릉항을 시작점으로 할 때** 영동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로 나와 강릉우체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남산교, 월드컵교 등을 지나 중앙초교까지 간다. 여기서 좌회전해 1.5킬로미터 정도 더 가면 남항진 입구다.

강릉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남항진이나 강릉항, 혹은 안목해변으로 가려면 227번, 228번, 101번, 105번 등을 타고, 반대로 사천항부터 걷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312번이나 313번 버스를 탄다.

서지초가뜰 옛 양반가의 백반 스타일로 20여 가지의 반찬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못상(1인 1만5,000원)과 질상(1인 2만원)이 대표적인 한상차림 메뉴다. 강릉시 난곡동 259번지 ☎ 033-646-4430

강릉 게스트하우스 예능프로그램 '1박2일'과 'VJ특공대' 등 방송에도 많이 나온 게스트하우스로 펜션을 리모델링했다. 1인 2만원이며 1만원으로 자전거를 빌려 경포호를 비롯한 주변 관광지를 1시간 20분~2시간 코스로 둘러볼 수 있다. 강릉시 안현동 ☎ 033-642-1155

걷는 거리 약 16킬로미터(어른 걸음으로 4~5시간)

문의 (사)강릉바우길 www.baugil.org ☎ 033-645-0990

강릉 바우길은

강릉 바우길은 총 16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산의 능선을 타고 가면서 며칠간 야영을 하며 걷는 울트라바우길을 제외한 각 구간은 대개 하루에 걷기 좋은 거리인 10~20킬로미터 내외다. 5구간에서는 경포호 한 켠에 위치한 안내센터에서 바우길 지도 및 숙박과 교통, 식당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쫄깃한 꼬막 조개 맞아?

예부터 벌교 사람들은 "감기 석 달에 입맛이 소태 같아도 꼬막 맛은 변치 않는다"고 했다. 남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던 그 꼬막에 전국적인 지명도를 안겨준 것은 지역 출신 소설가 조정래의 역작 〈태백산맥〉이다. 요즈음 벌교를 찾는 사람들은 으레 꼬막을 찾고,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읍내의 꼬막식당들은 성업을 이루고 있다. 오죽하면 "태백산맥이 벌교를 먹여 살린다"는 우스갯소리가 다 나왔겠는가.

작가는 꼬막에 대한 애정을 소설 곳곳에서 내비친다. "간간하고, 졸깃졸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그 맛"이라는 구절은 이제 꼬막 맛을 묘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문장이 되었다. 그는 외서댁을 겁탈한 염상구의 입을 빌려 "쫄깃쫄깃헌 것이 꼭 겨울 꼬막 맛이시"라는 다분히 외설적인 비유도 마다하지 않았다.

꼬막은 유사종도 많고 별칭도 다양하다. 참꼬막과 새꼬막, 그리고 표준명이 피조개인 피꼬막과 큰이랑피조개는 얼핏 보면 외관이 흡사하게 생겼다.

그 구분은 크기와 껍데기에 패인 부챗살 모양의 방사륵 숫자로 가능한데 몸집은 피조개가 제일 크고 참꼬막이 제일 작다. 방사륵도 참꼬막은 17~18줄인데 비해 새꼬막은 32~33줄, 피조개류는 40줄 안팎이다.

1803년에 김려가 저술한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는 골이 깊고 뚜렷한 참꼬막의 방사륵을 기왓골에 빗대 그 이름을 와롱자(瓦壟子)라 했고 강요주(江瑤柱)라는 명칭으로도 기록하고 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꼬막을 감(蚶)이라 하고 "크기는 밤만 하며 껍질은 조개를 닮아 둥글다. 빛깔은 하얗고 무늬가 세로로 열을 지어 늘어서 있으며 줄과 줄 사이에는 도랑이 있어 기와지붕과 같다. 두 껍질의 들쑥날쑥한 면이 서로 엇갈려 맞추어져 있다. 고깃살은 노랗고 맛이 달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의 고서를 인용하여 괴륙(魁陸)·괴합(魁蛤)·와옥자(瓦屋子)·와롱자(瓦壟子)·복로(伏老)·공자자(空慈子) 등의 이름과 천련(天臠) 또는 밀정(密丁)이라는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다. 새꼬막에 대해서는 좀 엉뚱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작감(雀蚶)이라 하면서 "꼬막과 유사하나 기왓골 모양의 도랑 무늬가 더 가늘고 기름기가 있다. 흔히 말하기를 이것은 참새가 들어가서 변한 것이라 한다"고 했다.

꼬막류는 조개 종류 중 유일하게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 붉은 피가 흐른다.

참꼬막과 새꼬막에 비해 월등히 큰 피조개의 경우 피의 양이 많아 피조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참꼬막은 제사상에 올린다고 해서 '제사 꼬막'으로 불리며 새꼬막은 '똥꼬막'이라고도 불린다. 성장 기간도 참꼬막은 4년이 걸리지만 새꼬막은 2년이면 다 자라는데 이 때문에 참꼬막의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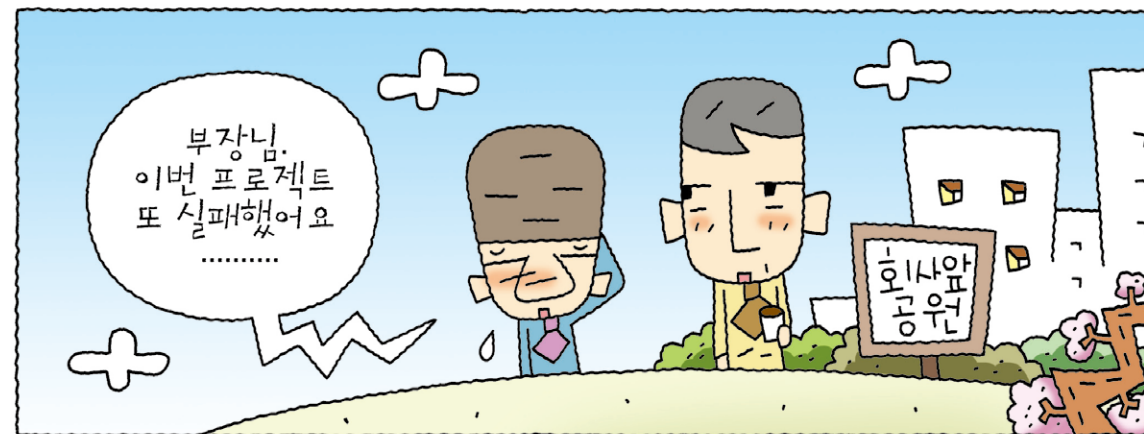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전라도의 토산물로 기록되어 있는 꼬막을 옛날에는 선물용으로도 썼던 모양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 남구만의 〈약천집〉에는 병석에 있던 처남이자 당대의 석학인 박세당에게 꼬막을 보내면서 동봉한 서찰이 나온다.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두루 지낸 고위 벼슬아치가 답례품으로 쓸 정도면 꼬막이 상당히 귀한 물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꼬막은 벌교 앞바다 여자만(汝自灣)에서 나는 것을 제일로 친다. 그곳의 갯벌에는 모래나 황토가 섞이지 않아 꼬막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벌교에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일식당과 꼬막마을이 다양한 꼬막 요리로 알려진 곳이고 서울에서는 인사동의 여자만이 유명하다.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중앙포토

진짜 바보는…

글과 그림 · 최영순

실패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은 몇 배나 고통스럽다. -앤드루 매튜스(호주의 저술가)

중앙포토

심청이가 토슈즈를 신다

가정의 달 맞아 국내 창작발레 1호 〈심청〉 재공연

지난해 9월 29일(현지 시각) 밤 프랑스 파리의 '팔레 데 콩그레스' 공연장. 한복을 입고 토슈즈를 신은 발레리나가 애절한 몸짓을 표현해내자 관객석 여기저기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3,700석을 가득 메운 현지 관객들은 동양과 서양의 신비스러운 조화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프랑스 관객들의 마음을 홀린 작품은 유니버설발레단의 창작발레 〈심청〉이다. 1986년 국립극장 초연 이후 전 세계 12개국 무대에 오른 〈심청〉은 궁중혼례와 탈춤 등 한국적 소재를 서양 예술인 발레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해외 관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본·싱가포르·러시아·오만 등 40여 개 도시에서 200여 회 공연을 가진 '발레 한류'의 선두주자다.

전 세계 무대에서 사랑받는 〈심청〉이 오랜만에 우리나라 관객들을 찾아간다. 국립극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9일부터 나흘 동안 효(孝)를 다룬 발레 〈심청〉을 선보인다. 한층 강력해진 스타무용군단과 강렬한 음악, 애절한 연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3막으로 구성된 〈심청〉은 잘 알려진 고전 〈심청전〉을 원작으로 한다. 유니버설발레단 창단 멤버인 미국인 안무가 에이드리언 댈러스가 1976년부터 선화예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우연히 접한 동화책 〈심청〉이 작품 탄생의 계기가 됐다. 에이드리언 댈러스를 필두로 미국 작곡가 케빈 바버 피카드가 음악 감독을 맡고 대본과 무대디자인, 조명에는 한국 제작진이 참여했다.

창작발레 〈심청〉의 매력은 '한국적 미(美)'에 있다. 효(孝)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구성과 고운 빛깔의 한복, 흥겨운 국악 장단은 기존의 발레 작품들이 가진 공식들을 깨트린다. 최고의 남성 군무로 손꼽히는 선원들의 춤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을 역동적인 영상과 함께 구현해낸 장면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한편 유니버설발레단은 발레 공연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이번 공연의 C석을 1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외국인 관객들에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외국인 친구와 동반 관람하면 20퍼센트 저렴하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글·백승아 기자

기간 5월 9일~12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 **문의** ☎ 070-7124-1737

콘서트

〈뷰티플 민트 라이프 2013〉

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재미와 추억을 공유한다'를 목표로 한다. 10cm·옥상달빛·원모어찬스 등 마니아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는 국내 다양한 인디계 스타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1박 2일간 진행되며 1일권(6만6,000원)만 예매도 가능하다. 페퍼톤스·권순관·오지은·피터팬컴플렉스 등은 첫날 무대를, 데이브레이크·이지형·디어클라우드·가을방학 등은 둘째 날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전기뱀장어·폴라로이드 피아노 등 실력파 신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장소 경기 고양아람누리
기간 4월 27일~28일
문의 ☎ 031-960-0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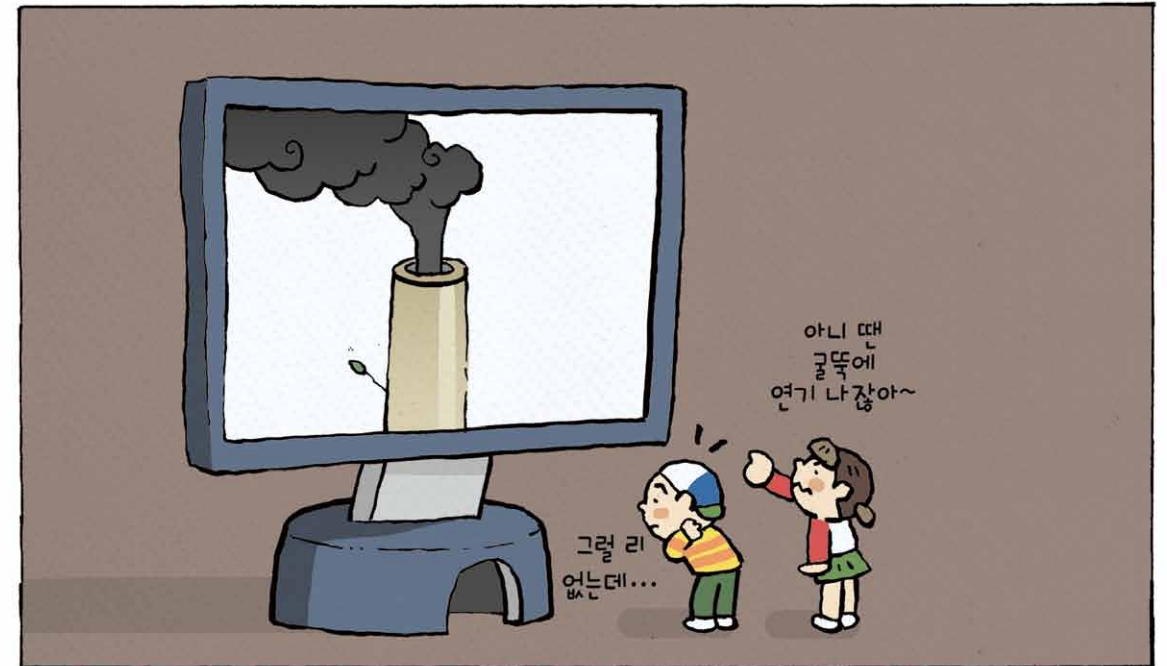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지난 1월 초연 이후 줄곧 매진 행렬을 이어오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 앙코르 무대로 돌아온다. 2013년 대한민국 국회대상에서 올해의 뮤지컬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6·25전쟁 당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남한군과 북한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앙코르 공연인 만큼 초연 때보다 약 200석 많은 큰 무대로 옮겨 관객들을 만난다. 배우 정원영씨와 박해수씨가 각각 순수한 북한 병사 류순호 역할과 냉혈한 북한군 이창섭 역할로 합류한다.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기간 5월 3일~19일
문의 ☎ 02-743-0181

피노키오 댓글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기찻길은 이야깃길

그대, 간이역을 아는가. 간이역에 가본 적이 있는가. 어릴 적 간이역에서 놀던 때가 떠오른다. 내가 살던 마을에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 간이역이 있었다. 하루에 서너 번 기차가 지나갔다. 화물열차는 쉼 없이 묵중하게 지나갔고 객차는 잠시 섰다가 느리게 다음 역으로 움직여갔다.

우리 중 누구도 시계를 가진 아이는 없었지만 누구라도 기차가 언제쯤 지나가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간이역사 주변에서 놀다가 기차가 들어오기 전 우리는 큰 못을 철로 위에 올려놓고 먼발치에서 기다렸다. 기차가 지나갈 때 튕겨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던 우리는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얼른 쫓아가 대못의 상태를 확인했다. 기대했던 대로 납작하게 눌려진 그것을 들고 나올 때의 뿌듯함이란. 변변한 스케이트를 마련할 수 없던 시절, 그렇게 썰매를 만들어 놀았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리고 톱밥난로가 있었다. 겨울철 간이역사 대합실의 톱밥난로는 추위로 얼어붙은 아이들에게는 은총의 불길에 값했다. 물론 간이역사를 통해 먼 길을 떠나거나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랬으리라. 좀처럼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난로의 불길만 응시하던 이들의 모습도 눈에 선하다.

>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 그름처럼 몇은 졸고 /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문산에서 공덕까지 운행하는 경의선 열찻길이 새로 열린 이후 집에서 일터를 오가기가 편해졌다. 물론 내가 타고 내리는 역사 그 어디에서도 시인 곽재구가 노래하고 작가 임철우가 이야기했던 사평역의 분위기를, 그리고 내가 어릴 적 놀던 고향 시골 역사의 풍경을 떠올릴 수는 없다. 아니, 떠올리려 하는 마음 자체가 우선 시대착오적일 터다. 그럼에도 나는 잘 포장된 대리석 타일 밑에서 혹시나 들릴지도 모를 옛 소리를 종종 떠올려보려 한다. 대학 시절 통기타를 들고 교외로 놀러갔다가 기타 줄을 퉁기며 함께 불렀던 노랫가락들이 어디엔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러스트 · 김일구

는 상념에 젖어보기도 한다.

공덕에서 서강역, 홍대입구역을 지나 가좌역에 이르는 구간은 지하선로로 설비되었다. 예전 지상에 있던 철길이 거두어진 자리를 놓고 여러 곳에서 논의가 한창인 모양이다. 어떤 이들은 공원을 만들고 싶어 하고 어떤 이들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기 싫어하는 눈치다. 또 어떤 이들은 책거리, 예술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벼룩시장을 만들고 싶어 한다.

무엇보다 내 관심을 끈 것은 이 공간을 놓고 지역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예술 운동을 하는 분들, 생활문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실험적인 상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귀농을 꿈꾸는 도시인들이 적지 않다. 메마르고 규격화된 도시적 삶과는 다른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과연 좋은 일인가? 나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경의선 마포구 지상 선로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그렇게 꿈꾸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미래의 꿈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유예하지 않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의 기찻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기찻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새로운 이야기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G

글 · 우찬제(문학평론가)